광 고

원양산업

제 1144 호

(2022년 4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2년도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4
- 원양 오징어 선사, 우루과이 결핵협회 후원 / 5
- 제11회 수산인의 날,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 6
- 해외수산협력센터, 2022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 7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8

■ 요리 만들기

(미소 된장소스 메로구이) / 19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2년 3월 보고 내용** / 20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00 달러 / 24
- 라니냐,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4
- 한국 선망선단,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높아 / 25
- 2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18% 감소 / 25
- PNG, 10개년 수산계획 수립 / 26
- 2월 PNA 항구 전재량 23% 감소 / 26
- PNG 업계, 조업일수 가격 대폭 인하 원해 / 27
- PNG 업계, FISH 선원 표준 인증 신청 / 27
- 日 냉동 눈다랑어 고가·재고 부족 문제 / 28
- 日 2월 냉동 눈다랑어 kg당 960 엔 / 28
- 日, 2022년 2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9
- 日 참치협회, 친환경 원양참치 냉매 도입 추진 / 30
- 견고한 글로벌 수요로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상승 / 31
- 만타 가다랑어 가격 빠르게 증가 / 31
- 글로벌 경유난, 참치 공급망 충격 / 32
- OPAGAC, 중서부태평양 MSC 인증 취득 / 32
- ISSF "전 세계 상업용 참치 80.5% '건강'" / 33
- 케냐 케이프타운협정 비준 / 33
- GTA, 5개년 참치 공약, 연례 검토 보고서 발간 / 34
- 스페인 2021년 참치캔 수출 10% 감소 / 34
- NGO, 범블비 대상으로 강제노동 소송 제기 / 35
- 유럽 참치 가공업체 해바라기유 위기 / 35

Contents

- 미국,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 추진 / 36
- 미국 WPRFMC, 낚시바늘 제한조치 지원 않기로 / 36
- EU 그린딜에 따른 참치 부문 영향 / 37
- EU,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이민 문제 결부 검토 / 37
- 유로-달러 환율, 세계 참치 무역에 큰 영향 / 38
- 대만 FSF-환경 NGO 지속가능성 협력 / 38
- 日 2021년 양식 참다랑어 출하량 2만 1,000톤 / 39
- 초저온 참치 사슬에 대한 중국 투자 가속화 / 39

■ 오징어어업 동향

- 페루 2022년 대왕오징어 쿼터 50만톤 / 40
- 포클랜드, 7월부터 칠레 항공 노선 재개 검토 / 4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베링해 명태 어획량 증대 위협 / 41
- 러시아, NAFO 의장직 상실 / 41
- 러시아 2023년 조업구역별 명태 TAC 권고안 발표 / 42
- ICES, 러시아 활동 자격 정지 선언 / 42
- 美 상원의원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실제 집행 난관" / 43
- 美, 러시아산 수산물 금수 행정명령 유예 / 43
- 알래스카 명태 가격 15년만의 최고가 / 44
- RFC 오너 Gleb Frank, 美 제재 명단에 추가 / 44
- EU, 러시아 수입금지 품목에 흰살생선 미포함 확정 / 45
- 英 러시아 흰살생선 35% 관세 도입 연기 / 45
- 日 정부, 러시아 금수 검토…수산물 제외 예상 / 46
- 日 2021년 명태 수출 1만 3,000톤 / 46
- Oceana, 어업 관련 이슈로 러시아 압박 요구 / 47
- 러시아, 투자쿼터 어선 건조 이행 기간 연장 검토 / 47
- 러시아, 불법 조업 선박 항만 입항 금지 추진 / 48
- 러시아, 농수산물 철도 운송 보조금 지원 예정 / 48

■ 각국 수산 동향

- EJF, 중국 정부에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 요청 / 49
- WTO 6월 13일 수산보조금 규제 재논의 예정 / 50
- 노르웨이 1분기 수산물 수출, 신기록 달성 / 50
- NPFC 연례회의 연기 / 51
- EU, NPFC 가입 / 51
-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 52
- EU 집행위, EU 어업자 연료비 지원 / 53
- 베이징, 4월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 검역 강화 / 53
- 계속되는 폐쇄조치로 中 수산가공업계 위기 / 54
- 中 칭다오, 수산물 수입 프로토콜 강화 / 54
- 美 3월 신선 수산물 매출 10% 감소 / 55
- 美 2021년 식물 기반 수산물 매출 1,390만 달러 / 55

■ 쉬어가는 난 (시)

- 바닷가에서 〈오세영〉 / 56

■ 국내 수산 뉴스

- 부산시, 수산분야 시정현안 설명회 개최 / 57
- 해수부,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 마련 / 58

2022년도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협회장, 박길주 전 노사위원장에게 공로패 수여

우리 협회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4월 7일 서울 도곡동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을 비롯, 경양수산 박길주 사장,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원산업 이명우 사장, 동원수산 왕기철 사장, 사조산업 김치곤 사장, 신라교역 김호운 사장,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회장단에 △2022년도 협회 정기총회 결과, △주요 양자·다자간 국제회의 참석 결과, △1차 어촌 뉴딜 ODA 추진 동향(투발루), △2022어기 포클랜드 오징어채낚기 조업 추진 동향, △2021년도 임금협정서 체결, △2022년도 원양어획물 조정관세, △원양어선 선원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 TF 추진 동향, △수산계고교 및 청년 어선원모집·발굴위한 홍보사업 지원 등을 보고했다.

한편, 협회장은 이날 2019년부터 3년간 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단체교섭을 원만히 이끈 박길주 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올해 노사위원장은 동원산업 이명우 사장이 맡게되며 이후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원양물산, 정일산업, 한성기업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1년씩 수행하게 된다.

원양 오징어 선사, 우루과이 결핵협회 후원

이동접종 차량 운영 관련 장비 전달

원양 오징어 선사들이 우리 원양어선 선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애써준 우루과이 결핵협회에 이동접종 차량 운영 장비 및 물품 등을 후원해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우루과이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이은철)의 요청으로 지난해 9~12월간 5회에 걸쳐 우리 원양어선 선원 362명(1·2차 접종 완료자 332명, 미접종자 30명)에게 접종을 실시했다.

덕분에 우리 선원들은 백신 2차까지 접종을 마치고 포클랜드 오징어 조업을 위해 몬테비데오를 출항할 수 있었다.

이후 대사관에서 접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루과이 결핵협회에 대한 후원 의사를 우리 협회에 타진했고 우리 협회 및 원양 오징어 선사는 이동접종 차량 운영에 사용되는 에어컨, 노트북, 프린터기, 잉크카트리지, 정수기 등을 후원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은 남서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이 선원 승선, 수리, 보급을 위해 정박하는 어업 전진기지이다. 우루과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전통적 우방이기도 하다.

11회 수산인의날,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

동원산업 김기봉 기관장, 신라교역 박성대 선장 장관 표창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이 지난 4월 1일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바다를 풍요롭게, 어촌을 활기차게'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용태 회장은 한러 어업협상 민간대표로 참여해 국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명태를 공급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우리 협회 부회장으로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46년간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훈장은 상훈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 이 중 최용태 회장이 받은 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자체적인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생산자단체와 상생협력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2021년 3천만불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등 39년간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권중천 ㈜희창물산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은탑산업훈장은 김 산업연합회를 설립하고 김을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식품규격(CODEX)을 신설하는 등 김 수출 6.9억불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삼해상사 김덕술 고문에게 수여되었다.

최용태 회장 외에도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우리 원양업계에서 동원산업 김기봉 기관장, 신라교역 박성대 선장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해외수산협력센터, 2022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

4.18 ~ 5.12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는 18일(월)부터 5월 12(목)일까지 국내외 원양어업 단독기업체 및 합작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2011년, '원양어업 총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2012년에 『통계법』 상 국가승인통계로 승인 받은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양업체 생산수출 및 경영실태 등이며 방문 조사와 이메일 조사를 병행한다.

이상묵 센터장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원양어업 정책, 연구 및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원양어업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는 2022년 8월 이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표될 예정이다.

문의: 해외수산협력센터(044-868-7838)

인 사

◇ 신규 선임

해외수산협력센터장 이상묵

◇ **전보**

기획홍보부 과장 공길웅 → 총무부(총무회계, 자금, 예산, 청사담당)

해외협력2부 주임 최동환 → 회원지원부(노사, 선원담당)

회원지원부 사원 최상진 → 해외협력2부(오징어, 기타트롤담당)

회원사 회사명 · 주소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명성피셔리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 26-2 조흥빌딩 801호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 18 동양빌딩 806호
승진수산(주)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34, 203호(우양냉장)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34, 324호(우양냉장)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21 협회 수익사업 세무조정 업무추진
- 임대사업 및 차량계량사업에 대한 결산전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등

○ '2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보수총액 신고(근로복지공단)
- 적용기간 : '22.4월 ~ '23.3월

○ 청사 임대사업 사무실 계약 관련 업무추진
- '22.4.30일로 임대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월 임대료를 5% 인상하는 내용으로 공문 송부 (한국수산회 / 3.17)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전회원사/3.25)
- 승진수산(주) 주소 변경
  · (변경전)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34, 203호 (우양냉장)
  · (변경후)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34, 324호 (우양냉장)
- 명성피셔리 주소 변경
  · (변경전)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 26-2 조흥빌딩 801호
  · (변경후)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 18 동양빌딩 806호

○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시/장소 : '22.4.1, 14:00 / 보령문화예술회관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 참석자 : 남북수산 대표이사 /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 원양부문 포상자
  · 남북수산 대표이사(동탑산업훈장)
  · 신라교역 선장, 동원산업 기관장(장관표창)

○ '22. 협회비 부과추진
- 2월분 업종별회비
- 2/4분기 월회비

○ 2021년도 수익사업 부문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서초세무서)

○ 협회 임원등기 추진
- 협회 임원선임에 따른 등기서류 징구 및 법원등기 추진

○ 2022년도 협회 회원수첩 제작 관련 업무추진
- 관련기관 및 단체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확인추진

○ '22. 3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

기획홍보부

○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2.4.7, 11:30/ 반트 타워팰리스
- 참석자 : 회장단사
- 내용 : 주요 현안사항 보고, 노사위원장 선임 및 수산계고교 홍보사업 지원 논의

○ 원양산업지 3월호 제작, 발송(310권)
- 협회소식 4건(원양협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2년 해양원격의료사업, 항만 검역대응 절차 개정, PCR · 격리대상 완화, 3월의 수산물 "참치", 할인행사 진행)
- 국내소식 6건, 해외수산정보 62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동향 등 정리, 교정 및 편집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47호 3.16, 148호 3.23, 149호 3.30, 150호 4.6/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47호 정보 22건(IOTC, 황다랑어 쿼터 30% 감축 필요/ Pacifical · Digimarc, 추적가능성 표준 테스트 실시/ EU 선단, 연료비 급등 수익성 붕괴)
- 제148호 정보 22건(글로벌 경유난, 참치 공급망 충격/ GAPP, 명태 시장 잠재력 조사/ ISSF, RMFO에 선박 모니터링 강화 권고)
- 제149호 정보 18건(PNG 업계, 조업일수 가격 대폭 인하 원해/ WTO 6월 13일 수산보조금 규제 재논의 예정/ 美, 러시아산 수산물 금수 유예 연장)
- 제150호 정보 31건(日 참치협회, 친환경 원양참치 냉매 도입 추진/ 기계 학습, 참치 분류에 도움줄 수 있다/ 러시아, 베링해 명태 어획량 증대 위협)

○ 보도자료 및 기고문 작성 · 홍보

가. 해외수산협력센터, 2022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4.6, 수산전문지)
- 한국수산경제(4.11, 2면), 수산인신문(3면), 수산신문(4면), 어민신문(5면), 한국수산신문(7면)

나. SNS 게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4.4)

○ 2022년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참가 안내(3.23, 전 회원사) * 11.2~5 개최 예정
- 벡스코 요청으로 회원사에 행사 개요 및 부스 할인 혜택 안내

○ 업종별 어종별 어가 제출 (3.17, 해수부 · 통계청)
- '21년 4/4분기 및 '21년 1/4분기 적용어가 제출

○ '22년 2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62,338	82
- 참 치	48,492	89
· 횟감용	6,471	112
· 통조림용	42,021	87
- 오징어	11,613	73
- 기 타	2,233	40

회원지원부

○ 수산후계인력 육성방안 및 대책 등 관련 업무추진

가. 수산후계인력 육성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2.3.16, 14:00 /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연수원, 및 관련 업 · 단체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수산계고교 등 수산후계인력 육성 · 개선 방안 연구 발표 및 어선원 인식제고 등 어선원 발굴을 위한 홍보계획 논의 등

나. 수산계고교 등 청년어선원 모집, 발굴 관련 홍보 재원 마련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2.3.21, 14:00 / 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연수원, 및 관련 선주 · 선원단체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수산분야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재원마련 논의 등

○ 2022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 결과 알림(회원사/3.15)
- 2개사 3척 신규선정(동원산업 본아미 · 미래로, 신라교역 신라챌린저)
  · 누적 8개사 18척(운반선 2척) 참여 중(금년도 신규선박 포함)

○ 22년도 1분기 노사정합동 점검 관련 업무추진

가. 22년도 1분기 노사정합동점검 예정안내 및 자료 등 제출요청(회원사/3.16)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나. 22년도 1분기 노사정합동점검일 안내 및 이행 현황자료 제출요청(회원사/3.24)

다. 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이행 '22년 1분기 노사정 합동점검
- 일시/장소 : '22.3.30, 14: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담당 주무관, 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노련, 원양노조 / 회원지원부장 외 1명
- 내용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관련 업무추진
가. 2022년 제1차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2.3.17, 13:30 / 수협중앙회 연수원
- 참석자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이사 및 감사 / (前)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1년 결산보고서(안), 감사선임(안) 심의 등
나.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기 선정자 장학금 지급 및 신규 장학생 신청 (유자녀장학재단/3.21)
- 기선정자 6명 (중등4명, 고등2명), 신규 2명 (초등 1명, 중등1명)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추진
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용역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2.3.18, 14:00 / 협회
- 참석자 : 용역수행기관(해양수산연수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이행매뉴얼 관련 수정사항 논의 등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이행매뉴얼 마련 연구용역 과업기간 연장승인 (해양수산연수원/3.15)
-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가 업무협의 및 보고서 완성도 제고목적
· (기존) '21.9.15~ '22.3.15 → (변경) '21.9.15~ '22.3.25

○ 한국해양안전진흥협회 관련 업무추진
가. 2022년 전기 이사회
- 일시/장소 : '22.3.23 / 서면회의
- 참석자 : 운영위원 등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1년 결산심의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심의 등
나. 2022년 정기총회
- 일시/장소 : '22.3.23 / 서면회의
- 참석자 : 안전진흥협회 이사진 및 협회 회원 등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1년 결산, 승인 및 '22년도 예산·사업계획 승인, 대표이사 선출 등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업무 추진
가. 공청회 참석
- 일시/장소 : '22.3.25, 09:30 / 세종청사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업·단체, 협회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관련 주제발표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토론 등
나. 서면의견 제출(3.14/산자부)
- 규범 수용 시의 문제점 및 발효 시 협정국 및 상품 별 세율 요청

○ 해적피해예방 정책수요자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 '22.3.25,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련 업·단체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해적피해예방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및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등

○ 2022년도 해외선원묘지관리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사업계획서 제출(해수부/3.14)
- 예산(82백만원)에 따른 묘지 정비 및 홍보계획 등
· 국고 74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나. 1차 교부금 교부신청서 제출
- (해수부/3.21) 및 교부결정 접수(해수부/3.22)
- 1차 교부금 4천만원 신청
다. 약정서 체결요청(해당 한인회/3.23)
- 확정 사업내용 및 보고 규정 등 유의사항 알림
라. 관리사업 지역의 사업 약정서 체결
- 사업 내용, 경비 지불 방법 및 보고 의무 등
마. 5개 지역 묘지관리 사업비 송금
- 총 사업비 8,200만원 중 약 3,720만원

○ 2022년도 EU 수출 등록선박에 대한 조사 점검 계획 알림(회원사/3.15)
- 조사·점검 계획 및 일정 등 송부

○ 외국인 선원용 인명사고 예방 동영상 콘텐츠 배포 알림(회원사/3.15)
- 선박안전사고 유형별 인명사고예방 컨텐츠 송부

○ 22년도 1분기 노사정합동 점검 관련 업무추진
가. 22년도 1분기 노사정합동점검 예정안내 및 자료 등 제출요청(회원사/3.16)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나. 22년도 1분기 노사정합동점검일 안내 및 이행현황자료 제출요청(회원사/3.24)
○ 22년도 오션폴리텍 어선5급 교육과정 산학협력금 송금 요청(동원산업 외 3개사/3.17)
- 4개사 각 5백만원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보전청구 방법 안내(회원사/3.18)
-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관련 실소요 통신비용 등 보전청구 방법 및 제출안내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여수, 통영검역소/3.16, 3.22)
- 4명(한국 3명, 필리핀 1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3.25 기준)
· 1차(810명) / 2차(729명) / 3차(209명)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4월 기관수요 조사결과 제출 (해수부/3.18)
· 구매 수요 총 8,550회분 ('22.4월 사용수요)
※ 정부 비축분의 전량이 교육부로 우선 배부되고 있어 수령 불투명
- 방역강화국가 등 조정사항 알림(회원사/3.15)
-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회원사/3.15)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 개정 안내(회원사/3.18)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알림 (회원사/3.23)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따른 송금요청 (경양수산 외 11개사/3.31)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안내(회원사/3.31)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4.8 기준)
· 1차(810명) / 2차(729명) / 3차(209명)
- 코로나19 방역관련 변경사항 알림(회원사/4.5)
- 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알림(회원사/4.6)
- 해외입국자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제출 조치 개선 알림(회원사/4.6)
○ 해적관련 업무추진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위협 정보 전파-1, -2 (회원사/3.23)
- '22년 4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 (회원사/4.4)
- 통합 해적피해 예방 대응 지침서 책자 배부 안내(회원사/4.4)
- 서아프리카 해적사건 정보 전파-1, -2 (회원사/4.6)
- 싱가포르 해협 해상강도 증가에 따른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4.7)
○ 선박안전관련 업무추진
- 우크라이나 유실기뢰 관련 안전운항 당부 (회원사/3.30)
- 2022년 4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송부(회원사/4.1)
- 교토1호(일본선박) 사고관련 인근 항행선박 수색 참여 협조요청 (회원사/4.8)
○ '22.2월분 원양어획물 수출실적 확인

구분	누 계(2022년 1월)			
	수출물량 (kg)	전년 대비	수출금액 ($)	전년 대비
통조림 용참치	8,731,446	36.3%	14,525,347	54.1%
횟감용 참치	1,760,587	87.6%	21,909,892	125.1%
저서 어류	724,940	263.9%	22,740,873	1484.0 %
오징어류	210,383	-	629,087	-
새우류	280,960	358.4%	366,494	363.0%
기 타	96,000	69.5%	249,200	65.3%
합 계	11,804,316	44.5%	60,420,893	130.3%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ICCAT 근로기준 작업반 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2.3.14~15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미국, 일본 등 ICCAT 회원국 / 협회 협력1부
- 내용 : 근로기준 관련 ILO 발표, 초기 작업 계획 수립 등

○ 대서양 바다거북 부수어획 저감 관련 한-미 실무 협의회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2.3.17,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원산과, 수과원 원양자원과, 조업감시센터, 해외수산협력센터 / 협회 협력1부
- 내용 : 바다거북 부수어획 저감 관련 한-미 실무 협의회 대응방향 논의

○ 대서양 바다거북 부수어획 저감 관련 한-미 실무 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22.3.22, 08:30 / 화상회의
- 참석자 : 미 NOAA 수산정책분석가, 어구전문가 등 10명, 해수부국총과, 원산과, 수과원, 조업감시센터, 협력센터 / 협력1부
- 내용 : 허가조건 일부 수정, 바다거북 부수어획 저감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사업 업계 대상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022.3.24, 10: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수과원 원양자원과, 해수부 원산과, 조업감시센터, ㈜썬컴, 경양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한성기업 / 협력1부
- 내용 : EM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사업 설명 및 선사 참여 요청

○ 참치어업 현안 이슈 및 주요 보존조치 등 방문 교육
- 일시/장소 : 2022.3.29, 14:00 / ㈜경양수산
- 참석자 : 선사 실무자 / 협력1부 과장 외 1명
- 내용 : 참치어업 현안 이슈 및 지역수산기구 주요 보존조치 안내

○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배정 협의 참석
- 일시/장소 : 2022.3.30,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다가산업, 대양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 협력1·2부
- 내용 : 업계 간 협의 후 정부와 재협의하여 배정 방식을 합의하기로 함.

○ 연승선 표준선형 개발을 위한 현존선 성능분석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22.4.6, 14:00 / 해양수산부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원산업, 동원수산 / 협력1부 과장
- 내용 : 연구용역 최종보고,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

○ ICCAT CDS(어획문서제도) 작업반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2.4.4~5,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미국, 일본 등 ICCAT 회원국 / 협력1부 주임
- 내용 : 추후 작업계획 및 국별 CDS 시행 현황에 대한 질문서 합의

○ ICCAT eBCD(참다랑어 전자어획 문서제도) 작업반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22.4.6~7, 1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미국, 일본 등 ICCAT 회원국 / 협력1부 사원
- 내용 : eBCD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적 사항 논의 등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WCPFC) COVID 19 관련 한시 면제 조치 안내 / 태평양 출어사
  · (연장조치) 연승선 해상전재 시 운반선 옵서버 승선, 선망선 옵서버 승선 의무 면제(~6.15)

· (제외조치) 3.16일부로 선망선 해상전재 금지. 단, 연안국 관할 수역 내 해상전재 시 해당 국가의 규정 준수
- (전 수역) ’22년 지역수산기구별 어획할당량 배정 계획(안) 의견조회
- (IOTC) 해상전재 프로그램 분담금 배정 / 인도양 연승 출어사
- (WCPFC) ’22/’23어기 FFA 등록비 배정
- (IOTC) 해상전재 프로그램 분담금 송금
- (CCSBT) 어획실적 및 양륙계획 제출(해수부·수품원)

○ 참치어업 지원사항
-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지역수산기구별 선박 정보 변경 조치(계속)
- 조업감시센터 IUU어업 예방 온라인 정기교육 실시 안내(전 회원사)
  · (대상) 선사 직원 및 현장종사자(선장 및 선원 포함)
  · (일정) 매월 15일, 25일(4월부로 비대면 교육 진행)
- (참치선망)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
  · 솔로몬 입어료 2차분(50%) 납부
  · 2022어기 PNG 지급보증서 개설 발생 경비 정산
  ·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현황 조사
- 지역수산기구별 선박 정보 변경 조치(계속)

해외협력 2부

○ 대 러시아 업무추진

가. 북양트롤 업무추진
-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조업선 CFMC 등록증 및 허가장신청서 제출(3.16 / 해수부, 연해수수산청)
- 조업일지 제작비 32,604.62루블 송금 완료 서한 발송(3.16 / 러수산청)
- 러수역 업종별 입어료 송금 요청(3.22 / 수협)
- ‘22년도 러수역 조업규정집 배부(4.5 / 러 출어사)

나. 꽁치봉수망 업무추진
- CFMC 통신장비 등록추진
  · 창진교역 302창진호 등록신청 서류제출 요청(3.23 / 창진교역)
  · CFMC 통신장비 등록 완료 알림(3.22, 3.23, 3.24 / 9개사, 9척)
- 러시아 입어료(10%) 접수
  · (납부) 9개사, 9척분, (미납) 1개사 1척분
- 창진교역 CFMC 통신장비 등록 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4.1 / CFMC)

○ 꽁치봉수망의 친환경 어상자 제작추진 관련사항

가. 해수부측에서 과메기용 어상자 재활용 가능토록 제작시 경영자금 활용 협조 요청
- 꽁치봉수망업체 담보부족으로 경영자금 활용불가 답변(3.16/해수부)
- 꽁치 친환경어상자 제작관련 추진사항
  · (제1차 꽁치위/2.18) 태림포장(주) 제조사와 업계간 협의, 기존 파리핀(양초)칠어상자 샘플 제공, 기존 샘플강도 수준의 친환경어상자 샘플제작 후 3월 중순까지 선사 제공키로 협의
- (태림포장(주)/3.18) 친환경어상자 샘플제작 후 각 선사별 20장 샘플제공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가. 남서대서양수역 오징어 어획동향(3.23 기준)
- (오징어채낚기)(누계) 16,145톤(전년 대비 78%)
  * (척당평균) 538톤, 30척 조업
- (41해구트롤)(누계) 10,781톤(전년 대비 83%)
  * (척당평균) 1,540톤, 7척 조업

나. 포클랜드 현지운반선사(SAAS) 이용계획조사 제출(드래곤사)
- 3개사 3척 금년 SAAS전재 약속이행 및 일정통보
  * 101스카이맥스, 5.4, 13컨테이너 / 801승진, 5.5, 12컨테이너 / 103금양, 5.8 / 12컨테이너

다. 포클랜드채낚기 조업동향(4.6기준)
- (누계) 20,107톤(전년 대비 55%). 30척 조업
  * 척당평균 : 670톤〈최대 1,065톤, 최저 216톤〉

라. 포크항만청 PSC 결과 및 드래곤사 방한일정 등 접수/안내(4.5/출어선사)
- PSC 결과(전체선단의 4.7%), 드래곤사 방한일정 (5.25~6.15)

○ 지역수산기구 업무추진

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업무추진
- NPFC 제7차 연례회의대비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2. 3.17(목), 16시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FMC, 꽁치, 트롤 위원사 / 협회
  · 내용 : 북태평양 꽁치 조업 120일 제한 반대 전재제안서 채택 세부 내용 협의
- 제7차 NPFC 연례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3.11 / 해수부)
- 제7차 NPFC 연례위 연기 통보 입수(3.23 / 해수부)
  · 미국/캐나다 제안으로 HOD회의결과, 연례위 연기(회의일자 추후협의)

나.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업무추진
- '22년도 SPRFMO 전갱이 어획할당량 분배의견 (3.24 / 동원산업, 정일산업)
  · (동원산업) 실조업가능 선박기준, 총어획할당량 1:1 배분요망
  · (정일산업) '20년 협의후 해수부 기존배분방침 동의
    * 기존 배분방침 : 기본할당량(3,580톤)은 정일산업, 추가증가분(7,960톤) 동원산업/정일산업 각 50%배분)
- 선박등록정보 수정제출요청(4.5 / 오징어 · 북양 · 꽁치출어사, 동원산업, 정일산업)

다.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업무추진
- NAFO 쿼터전배 완료 알림(3.18 / 해수부)

○ 원양어선 안전펀드사업 업무추진
- 원양어선안전펀드사업 수요조사 (3.21 / 오징어, 꽁치위원사)
  · ('22년이후) 신조 대체, ('23-25년) 중고선 대체 의사
- '22년 원양어선안전펀드사업 수요조사 결과 및 업계동향 제출
  · (신조) 오징어채낚기(대양수산, 23년 1척, 선가 165억)
  · (중고대체) 희망수요 없음.
    * (주요원인) 영세기업으로 자금동원력 부족, 채산성 지속악화, 중고선도입시 국내외 안전강화 요건 충족위해 도입비용외 개조수리비 과다 발생
- 원양어선안전펀드사업 수요조사(3.29 / 전회원사)
- '22년 원양어선안전펀드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 (4.6 / 해수부)

신조
연승 2척('22/FRP/대만/50억/사조산업) 채낚기 1척('23/강선/한국/165억/대양수산) 저연승 1척(24/강선/한국/250억/홍진실업)
중고선 도입
연승 1척('22/400톤급/5억/사조산업) 선망 1척('22/1779톤급/100억/사조산업) 트롤 2척('23/1000톤급/50억/사조오양), ('25/2500톤급/120억/정일산업) 저연승 1척('23/700톤급/80억/정일산업)

* 세계로선박금융(주) : 수요조사 정보 공유

○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관련 민간 위촉통역인 승선배치 계획 접수(3.24 / 남해어업관리단)
- 승선기간 : 3.15~4.23(40일간)
- 민간위탁사업비 계정임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통역 비용지급곤란, 협회로 사업예산 추가지급 추진

나. 동 사업의 사업비증액에 따른 사업계약 변경 추진
- (해수부) 지도교섭과 및 운영지원과 절차, 구비서류 협의
- (협회) 추가경비요청 사유서 및 산출내역서 보완 (계속)
  * 총 3천만원 증액 : 통역비1천만원, 유류비2천만원

○ 해외어장 자원조사 조사사업 업무추진

가. ’21년도 동사업 이자반납 및 결과보고서 제출(3.22 / 해수부)

나. ‘22년도 동사업 사업계획서 및 PT발표자료 제출 요청

- 서면평가추진 : 선정위원회(3.29경), 서면심사용 사업신청서등 재작성 제출요청

다. ‘22년 해외어장자원조사선정위원회 개최 알림(3.29 / 원양물산, 예람교역)

* ’22.3.30(수), 14:00 / 서면평가

라. ‘22년 해외어장자원조사 선정위원회 결과 알림(4.1 / 예람교역, 원양물산)

- 2개사 2척(북태평양수역, 빨강오징어, ‘22.5-8월, 채낚기)

마. ’21년도 해외어장자원조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3.29, 4.4 / 해양수산부)

바. 선정위원회 후속조치, ‘22년 조사계획 수정 제출(4.8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관련회의개최 사업 업무 추진

- 제31차 한러위 개최 집행 경비 추가 보고 및 이나라도움 집행 처리(4.7 / 이나라도움)

○ ‘22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관련 업무추진

가. ’22년도 상반기 해외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유보물량 배정기준 변경 알림

기존
- ‘21년도 25%이상 상장 : 기 배정물량의 30% 이내 배정 - ‘21년도 15%이상 상장 : 기 배정물량의 15%이내 배정
변경
‘22년도 25%이상 혹은 ’21년도 50%이상 상장 : 기배정물량의 50%이내 배정 - ‘21년도 15%이상 혹은 ’22년도 25%이상 상장 : 기 배정물량의 30% 이내 배정

나. ‘22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소요예상량 조사결과 제출(4.6 / 해수부)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72개사 798건(3.1~3.31) 계량

○ 부산국가정보원 대테러과 협회 방문

- 일시/장소 : ‘22.3.14, 14:00/부산지부
- 참석자 : 부산국정원 대테러과장 외 1명,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원양어선의 위험수역 조업에 대한 대테러 정보 공유 등 협의

○ 원양노조와 원양어선 방선

- 일시/장소 : ‘22.3.21, ‘22.4.5/ 감천부두
- 참석자 : 원양노조,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경양수산, 해천물산, 사조산업 소속 선박 방선(3.21), 동원수산, 사조산업, 아그네스수산 소속 선박 방선(4.5)

○ 냉동창고 근로자 복지관리위원회 사전회의

- 일시/장소 : ‘22.3.31, 16:00/ 원양프라자 3층
- 참석자 :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추징에 대한 업무 협의

○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 부산 수산업계 시정현안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2.4.1, 16:00/ 수협자갈치위판장 3층 회의실
- 참석자 : 부산시장, 지구별·업종별 수협장, 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 등 16명(협회장)
- 내용 : 부산시 수산분야 주요시정현안 설명 및 업계 건의 등 협의

○ 부산서부경찰서 협회 방문

- 일시/장소 : ‘22.4.4, 16:00/부산지부
- 참석자 : 박승환 정보관,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원양어업 현황 설명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 일시/장소 : '22.4.7, 11:00/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산재) '22.3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복지) '22.3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6개사 7척(참치연승7)
- 출항 : 7개사 9척(참치연승6, 참치선망3)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가. CAOFA 절차규정(RoP) 수립 회의
- 일시/장소 : '22.3.2.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김정례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KMI, 극지연구소, 외교부
- 내용 : CAOFA 절차규정 수립 논의

나. 제1차 IATTC 환형낚시(Circle hooks) 워크숍
- 일시/장소 : '22.3.8~9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김근령 사무관,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연승어업 부수어획 경감 효과 증진을 위한 환형낚시 사양 논의

다. ICCAT 바다거북 한-미 협의회
- 일시/장소 : '22.3.22. / 화상회의(해수부 중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김현태 국장, 국총과 유은원 과장, 김근령 사무관, 심수빈 사무관, 김정례 주무관, 나일강 주무관, 수과원 이미경 연구사, 원산과, FMC, 원양협회,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대서양 연승어업 바다거북 혼획 경감을 위한 어업 면허 조건 논의

라. CCSBT 생태학적 관련종 작업반 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 일시/장소 : '22.03.21~25/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근령 사무관, 국립수산과학원 임정현 연구사, 권유정 연구사, 협력센터 김선경 전문관
- 내용 : ERS(생태학적 관련종), 특히 바닷새 혼획 완화 조치 검토

마. ICCAT EMS 작업반 회의
- 일시/장소 : '22.02.28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심수빈 사무관, FMC, 원협, 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전자감시시스템 목적 및 주요요소, 시범사업 경과, 향후 작업 계획 등

바. 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 일시/장소 : '22.3.1.~3.4.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심수빈 사무관, 원협, 업계, 센터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22년 참다랑어 조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참다랑어 권고 개정, 축양장 성장률 검토, 관리전략평가 경과 논의 등

○ 보존관리조치 번역 및 발행
- 2021년 개정 조치 번역 및 책자 발행 완료

○ OPRT 워크숍 참관 및 워크숍 내용 정리

가. CAOFA 절차규정(RoP) 수립 회의
- 일시/장소 : '22.3.7.~3.8 / 화상회의
- 참석자 :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참치 연승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약 80명), 해외수산협력센터 원태훈, 김선경, 김수민 전문관
- 내용 : 외국인 어선원 고용 관련 이슈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가. OFIS 정책정보 확인주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3.4,국제협력총괄과)

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2.3.10, 16:00/ ㈜휘스커 사무실(대전 유성)
- 참석자 : 휘스커 최택진 대표, 황우용 부장, 이호연 퍼블리셔, 김미선 디자이너,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OFIS 유지보수 용역 보안교육 및 점검

다. 모의해킹 대응(3.8~10)

라. 원양산업 뉴스 및 원양산업동향 3월호 업로드

마. 1/4분기 전문가 특별기고 게재(3.29)

- IT로봇 전문가가 본 스마트양식의 어려움과 나아갈 길(포항공과대학교 유선철 교수)

○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가.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OFIS 등록 8건

나. 명예해양수산관 추천 요청

- 피지 김종태 재위촉 추천서 2건 접수
- 가나 이윤홍 재위촉 추천서 1건 접수
- 명예해양수산관 신규위촉 대상자 추천 협조요청(아르헨티나 합작회사, 포클랜드 오징어협의회 주재원,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등) 및 제도 운영 관련 의견조사(협회)

다. 명예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OFIS 등록 8건

○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 지원 사업

가. 국외출장(가나) 관련 업무

- 일시/장소 : ’22.3.4, 14:00/ 주한 가나 대사관(서울 한남동)
- 참석자 : 주한 가나 대사관 직원 2명, 가나 외교부 직원 2명,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19년 가나 어시장 사업 주요경위 공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 한-가나 국제협력 촉진 및 원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외 출장계획 보고(3.15, 내부)

나.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신규)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
- 신규 신청사업 외교부 심의 대응(계속)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가. 2022년 원양산업 통계조사 관련

- 조사원 채용
  · 채용공고 (3.17.~3.25. / OFIS, 잡코리아)
  · 서류전형 심사 및 합격자 공고 (3.28. / OFIS)
  · 면접전형 심사 및 최종합격자 공고 (3.31. / OFIS)
- 통계조사 사전 검토회의 개최
  · 일시/방법: 2022.3.23.~3.29. / 서면검토
  · 검토위원: 국립수산과학원 권유정 박사, 선민수산 강해봉 이사, 사조산업 최종현 대리
  · 내용: 조사 내용, 보고서, 생산동향 개선사항 검토

나. 2022년 원양산업 실태조사 관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2.3.3, 14:00 / 세종 마이스센터
  · 평가위원: 부경대학교 신용민 교수, 지속가능어업 자문·연구센타 김장근 박사, 정일산업 박강휘 부장, 국립수산 과학연구원, 권유정 박사, 해외수산협력센터 이희진 팀장
  · 내용: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 평가
- 용역 계약 체결(3.10.), 선금 지급(3.15.)
- 착수보고회 개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2.3.21. 14:00 / 세종마이스센터
  · 참석자: 해양수산부 이승욱 사무관, 조현주 주무관, 해외수산협력센터 이희진 팀장, 윤유정 행정관
  · 내용: 실태조사 용역 추진내용 발표, 의견 제시

다. 원양어업 생산동향 작성

- 22년 1월분 원양어업생산동향 작성 및 OFIS 업로드

○ 해외투자 정보조사, 전문교육

가. '22년도 해외투자정보조사, 전문교육 2차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2.3.15~3.28
- 조사결과 : 4개사 응답 제출

○ 센터 운영 관련

가. 센터장 채용 면접심사 및 후속 조치

- 채용 면접 심사
  · 일시/장소: ' 22.3.24 / 원양산업협회(서울)
  · 내용: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 평가 및 최종 합격자 선정
- 채용심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합격자 공고 및 개별 합격 통보(3.28)
- 인사발령 및 연봉계약 추진(3.30)

나. 「국제협상전문관 교육기능강화 및 해외진출지원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전문가 초청 교육
  · 일시/장소: ' 22.3.22 14:00 / 토즈
  · 참석자: 부경대 경제학부 신용민 교수, 협력센터 직원, 원양산업협회 2명
  · 내용: 수산업과 제도에 대한 이해
- WCPFC 보존관리조치 발간 관련 업무

미소 된장소스 메로구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메로 140g 1팩, 올리브유, 샐러드 채소, 발사믹 식초, 레몬 약간

<소스>
미소된장 3술, 고춧가루 0.7술, 맛술 2술, 설탕 0.7술, 피넛버터 0.3술, 생강가루 0.1술

✤ 이렇게 만드세요

① 메로에 소스를 앞뒤로 바르고 냉장고에 넣어 8시간 이상 재운다.
② 충분히 재운 메로구이의 양념은 물로 살짝 씻어낸다.
③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④ 접시에 샐러드와 구운 메로를 담고 레몬 조각과 발사믹 소스를 곁들여 준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3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세네갈-EU 어업협정 난관

○ Pierre Karleskind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유럽수산위원회 대표단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세네갈을 방문.

○ 수산위원회와 함께 2019-2024 지속가능어업 동반협정(APPD)의 자금 조달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방문의 목적.

○ Karleskind 위원장은 "세네갈이 연초 이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주들에게 협정에 규정된 어업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

○ EU 대표단 측은 해당 협정의 대상인 참치선 2척과 그 외 어선 2척이 세네갈 어업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나. 기니만 다국적훈련 Obangame Express 실시

○ 2022년도 기니만 다국적 해양훈련 "Obangame Express"가 3.8~18 세네갈에서 진행.

○ 동 훈련의 목표는 야운데 아키텍쳐(Yaounde Architecture)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니만 해양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것.

다. USAID 세네갈 보건 부문 지원

○ USAID(미국 국제개발청)은 "Owod" 프로젝트로 세네갈 보건부문에 5년간 총 300억 CFA를 지원.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8kg 1.5kg	1,555 1,510 1,375
황다랑어	10kg 3.4kg 1.8kg	2,870 1,601 1,510
눈다랑어	10kg 3.4kg 1.8kg	1,555 1,555 1,510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438 유로/MT	경유	'22.3.25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피지 코로나19 근황

○ 피지 입국자 격리가 지난 7일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달만 항공관련 예약이 7만건 이상 나오고 있으며, 호텔 및 리조트 예약 등 피지 입국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

○ 이에 따라 방역관련 규정도 완화되어 입국 48시간 후~72시간 내에 간편 검사를 하는 식으로 변경.

○ 단, 입국시 간편검사신청 예약증을 소지해야 함. 예약 신청은 인터넷에서 가능.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 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75달러/MT	M.G.O	'22.4.8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3~0.8톤, 황다랑어 · 눈다랑어 0.2~0.4톤 가량.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코로나 누적 감염자는 현재 5,280명이며, 완치자 2,972명, 사망자 11명. 현재까지 모든 학교 및 공공단체 모임 금지.

○ 필수 사업은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 영업을 시행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 스타키스트 사모아 통조림 공장은 특별 예외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가동 중.

○ 아메리칸사모아 방역 상황:

- 모든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5일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하와이에서 탑승 전 24시간 내에서 재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전 탈로파 패스에 등록해야 함.(5세 이하는 검사 제외)
- 4월부터 모든 입국자는 음성 이면 격리 없이 귀가 조치하고, 양성자는 7일간 의무 격리.
- 모든 하와이 출국자는 3차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 시 별도 검사 없이 비행기 탑승 가능.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86(gallon)	'22.4.7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21/22 조업연도 9월 이전 입국 선원에게는 최저임금 +$4을 지급해야 하며, 9월부터는 $5을 추가 지급.

○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상승시켜 자국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관측됨.

나. 유류가격 동향

회사	종류	가격	조사일
Z	MGO	$1,126/MT	'21.2.23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050	Sea Jho Co LTD.
	L	3,350	
	M	3,250	
	2M	2,950	
	S	3,000	
	2S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가나, 타 아프리카 국가에 금어기 설정 및 준수 요청

○ Paul Odatei Bannerman 가나 수산위원회 부국장은 Abidjan에서 열린 제13차 중서부기니만 장관급 수산위원회 회의(FCWC)에서 기니만과 접한 이웃 서아프리카 국가들에 어업 금어기 설정과 준수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요청.

○ Bannerman부국장은 다른 FCWC 국가들이 조업을 허락하는 동안 가나만 금어기를 준수할 경우, FCWC 지역 어업인들이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이동 조업하게 돼 해당 지역 어자원 공유 보호 측면에서 실효가 없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800	
	10kg 하	1,44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5kg 상	1,150	
	1.5kg 하	1,10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1,120달러/kl	M.G.O	'22.3.31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 물량 감소, 수출액 증가

○ 2021년 1월~ 10월간 수산물 수출량은 98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감소 (지난해 1월 ~ 10월간 104만톤 수출).

○ 금액으로는 6.6 % 증가한 45억 6천만 달러.

○ 수산물 무역수지는 5.80% 증가한 41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수출품목별로는 (2021년 1월 ~10월) 수출액으로 새우류 18억 2,000만 달러(40%), 다랑어·가다랑어류 5억 8,600만 달러(13%), 게·꽃게류 4억 9,100만 달러(11%), 연체어류 4억6,200만 달러(10%), 해초류 2억 6,900만 달러(6%).

나. 인도네시아 수산부문 투자 정체 상태

○ 수산부문 투자실현이 Covid-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1년 1월 ~9월간 투자 실현액수가 4조 1,100억 루피아로 9.67% 감소.

○ 주요 해외투자국은 싱가폴, 스위스, 인도, 일본, 중국 등.

○ 주요 투자부문 내역은 수산양식 1조 2,900억 루피아, 수산가공 1조 1,600억 루피아, 어업 7,300억 루피아, 수산무역 7,000억 루피아, 수산서비스 2,400억 루피아 등.

○ 해양수산부 투자사업국장 Catur Sarwanto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폴, 스위스, 일본, 중국 투자자들이 가공, 냉동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다. 코로나 관련 동향

○ 인도네시아 전체 확진·사망 현황
- 누적 확진자 : 5,748,725명 (+ 24,867)
- 회복 : 5,122,602명 (+49,080)
- 사망 : 150,172명 (+254)

○ 백신 접종 현황
- 총 접종대상자 : 208,265,720명
- 1차 접종 : 192,025,581 (92.2%)
- 2차 접종 : 147,939,599 (71%)
- 3차 접종 : 12,451,697 (6%)
- 전국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감소 추세
- 해외입국자(내,외국인) 격리를 1박 2일로 축소.
- 1일 확진자수 2월 16일 64,718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3월 7일 21,380명.

○ 한인동포 코로나19 현황 (3.7 시점)
- 2020년 6월 첫 확진발생 이후 누계 1,003명.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관

가. 중국의 PNG 진출 현황

○ 중국인은 아직까지 직접 조업 형태의 수산업 진출은 미미하나, 그 이유는 1)군집되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이 적으며 2) PNG 당국의 어구 및 중국 조업선 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언제든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아직까지 중국의 PNG 수산자원 어획은 개인에 의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활성화로 인한 현지 어민들의 불이익은 심각한 상태.

○ PNG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필리핀,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일본에서도 지원산업 등이 존재함. 한국에서도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진출 및 원조 등이 정책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기타
바다가재 활어	4.5달러/kg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948달러/리터	Diesel	'22.3.29

〈게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900 달러

만타 가격 1,850~1,950 달러…9년만의 최고가

다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4월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연료비 상승과 어획 부진으로 아시아와 중남미 허브에서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방콕의 가다랑어 원어의 4월 CFR 가격은 지난달 대비 14% 상승한 톤당 1,900 달러이며,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월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이보다 높았던 것은 2013년 4월 톤당 2,350 달러를 기록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이러한 급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붙는 에콰도르 만타 가격보다도 높아졌다.

동부태평양 주요 가공 거점인 만타의 가다랑어 가격은 약 7% 상승한 톤당 1,850~1,950 달러를 기록했다. 만타 가격 또한 2013년 이후 4월 가격 최고가였다.

아시아 대기업 무역상사의 한 임원은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900~1,950 달러 선이라고 응답했다. 또 다른 임원은 1,850~1,900 달러 선이라고 응답했다. 첫 번째 임원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어획 부진과 연료비 급등"이라고 말했으며, 두 번째 임원은 "복합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임원은 연료비 상승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조업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선단이 시장 가격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미국 기업의 참치캔 부문 관계자는 "현재 태국에서 (가다랑어) 가격 예측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며칠간 일부 대형 가공업체가 톤당 1,900 달러를 지불했고, 일부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 중"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4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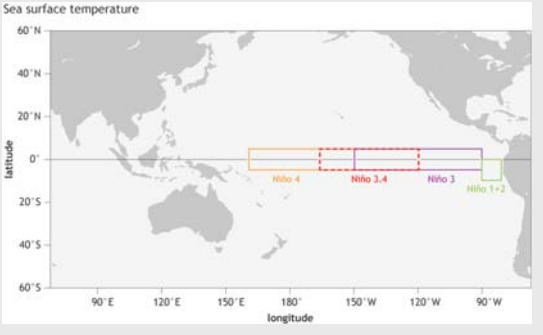
라니냐,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6~8월까지 지속 가능성

에콰도르 전국수산업협회(CNP)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3.4지역(그림 참조)의 해수면온도는 섭씨 -1도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약화 징후가 없다.

최근 미국 해양대기청(NOAA) 기후예측센터는 53%의 확률로 2022년 6~8월, 북반구 여름까지 라니냐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NOAA에 따르면 라니냐가 1월에 강하게 나타났지만 3.4지역(중서부태평양에서 참치가 풍부한 수역)의 12월 월간 해수면온도는 -1.1도로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

PNA 최신 자료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수역 주변 적도 부근에 가까울수록 참치 어획량이 좋았고 키리바시 방향, 동쪽으로 갈수록 어획량이 상당히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1일자

한국 선망선단,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높아

높은 선장 역량이 그 이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망선의 기국은 총 23개이다.

생산량 상위 10개국 선단의 2020년 참치 어획량은 152만 8,316톤으로 중서부태평양 총어획량 272만 2,499톤의 56%, 세계 참치 어획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상위 10개국 간 생산성은 큰 편차를 보였다.

이 중 한국국적 어선은 가장 생산성이 높았다. 27척으로 25만 2,317톤을 어획해 1척당 평균 어획량 9,345톤, 연간 6항차를 기록했다.

한국 어선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 선장의 전문성과 경험이다.

키리바시 국적 선망선은 2번째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25척이 20만 421톤을 어획해 1척당 평균 어획량 8,017톤을 기록했다. 키리바시 선망선의 선장은 한국인이 많다. 한국의 몇몇 원양선사들은 합작으로 키리바시에 진출해 있다. 키리바시 선망선 중 14척은 1,500톤 이상으로 상당히 큰 것도 생산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

파푸아뉴기니 선망선의 생산량은 수년에 걸친 척수 감소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형 선박이 많아 척당 생산량이 낮았다.

기 국	척수	생산량 (톤)	척당 생산량(톤)
한국	27	252,317	9,345
키리바시	25	200,421	8,017
파푸아뉴기니	38	198,361	5,220
마이크로네시아	27	177,920	6,590
대만	29	176,519	6,087
일본	69	163,290	2,367
미국	23	137,247	5,967
나우루	15	92,132	6,142
마셜제도	11	83,721	7,611
바누아투	6	46,388	7,731
합 계	270	1,528,316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6일자

2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18% 감소

1월 회복 후 감소

중서부태평양 공해 및 PNA EEZ에서의 2월 선망선 참치 어획량은 9만 8,585톤으로 1월 12만 309톤보다 18% 감소했다.

선망선 조업 활동은 PNA 수역 서부, 특히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 주변 수역에 집중됐다.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주변 수역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의 60%를 차지했다.

키리바시 EEZ에서는 보고된 어획량이 좋았음에도 조업 활동이 1월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월 어획량 감소는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 감소에 기인한다. 일일 가다랑어 어획량은 1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1월과 유사한 25톤 수준이다. 대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지난해 12월 7톤 이상이었으나 1월 4톤 이하로 크게 감소한 후 2월 다시 감소해 3톤 밑으로 내려왔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23일자

PNG, 10개년 수산계획 수립

육상 가공공장 생산량 201% 증가 전망

파푸아뉴기니 국립수산청(NFA)이 10개년 전략적 수산계획을 수립했다.

수산계획에 따르면 PNG는 어획량 증대와 육상가공 확대를 통해 10년 내 참치 시장 가치에 대한 GDP 기여도를 32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2019년 기준 PNG 국적 선단의 참치 어획량은 33만 3,919톤이다. NFA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감소율을 1%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30년까지 어획량이 12% 증가해 37만 4,183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FA는 2030년까지 국내 육상 가공공장 10개소에서 32만 1,750톤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4개의 신규 가공공장 건설, 생산량 201% 증가(2019년 기준 10만 7,000톤)를 의미한다. NFA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4개의 신규 가공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치 시장 가치는 10년 내 15억 8,000만 PGK(4억 4,869만 달러)에서 67억 2,000만 PGK(19억 1,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관적 전망에서는 751% 증가한 134억 4,000만 PGK(38억 1,000만 달러)에 이른다. 육상가공 참치의 85~90%는 수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박조업일수제도(VDS)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해 3억 7,250만 PGK(1억 578만 달러)에서 5억 7,630만 PGK(1억 6,366만 달러)로 예상했다. PNG는 자국 양륙 및 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환급제도를 중단할 것이다.

또한, 관세, 법인 소득세, 급여 관련 세금을 모두 포함해 모든 참치 관련 활동으로 인한 PNG의 세수가 10년 동안 3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4일자

2월 PNA 항구 전재량 23% 감소

마주로항 전재량 감소했으나 절반 차지

2월 PNA 항구 전재량은 4만 5,337톤으로 1월 5만 8,985톤에 비해 23% 감소했다. 이는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항구 전재량은 어획량 분포를 반영했다. 어획량이 감소한 마셜제도에서는 마주로항 전재량이 7,000톤 가까이 감소해 2만 2,000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마주로항은 여전히 전체 전재량의 절반 정도를 담당한다.

파푸아뉴기니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1만 6,000톤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1월보다 9%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24일자

PNG 업계, 조업일수 가격 대폭 인하 원해

현재 10,500 달러, 타국 대비 비싸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FIA)의 Sylvester Pokajam 협회장은 정부에 수산허가법(National Fisheries Authority, NFA) 검토를 요청했다. 협회장은 2013년 수산허가법 승인 이후 신규 투자가 없었고 중국과 한국의 투자자들이 현재 정책으로 인해 투자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협회장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PNG)는 국적 선망선에 조업일수 가격으로 하루당 1만 500 달러를 부과한다. 반면, 다른 태평양 도서국들은 6,000~7,000 달러 정도이다.

PNG에는 국내 가공을 위해 국내에 하역하는 참치 원물에 대해 톤당 400 달러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선망선이 하루 30톤을 어획해 국내에 하역할 경우 1만 2,000 달러를 받을 수 있고 조업일수 가격 1만 500 달러를 제외하면 오히려 1,200 달러의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환급 제도는 국내에 참치캔 가공공장을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PNG 국적 선망선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조업일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협회장은 수산허가법이 재검토 되지 않으면 EU의 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해 PNG 가공공장이 결국 문을 닫을 수 있으며 파푸아뉴기니 국적 선망선이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PNG 국적 선망선이 2018년 26척에서 현재 12척으로 감소했고 일부 선망선은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등으로 국적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PNG가 마이크로네시아협정(PNA 국적 선박이 다른 당사자의 어업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에 따라 PNG에 입어하려는 PNA 기반 외국적 어선(주로 필리핀 국적)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PNG 국적 어선은 수정된 PNG 정책에 따라 동부 공해 어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24일자

PNG 업계, FISH 선원 표준 인증 신청

선망선 32척

파푸아뉴기니 어업협회(FIA)는 3월 12일 FISH(Fairness, Integrity, Safety, and Health) 선원 표준(Standard for Crew)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증을 위한 제3자 의무 감사는 4월 첫째 주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진행된다.

인증 신청 대상은 선망선 32척으로 평균 28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어 선원으로 보면 총 900여명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FISH 선원 표준은 2020년 12월에 시작되었다. 이 표준은 전 세계 야생 포획 어업 어선의 노동 관행에 대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인된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증 신청자는 강제노동 금지, 아동 노동자 고용 금지 등 9가지 기준을 다루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25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고가·재고 부족 문제

코로나·연료비·엔저 3중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일본 냉동 눈다랑어 가격이 한층 더 높아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만 선단의 출어 척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원유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까지 받아 출어를 단념하는 어선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2월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가격은 kg당 960 엔으로 1,000 엔대에 근접했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전국 주요 냉동창고에 비축된 냉동 눈다랑어 재고는 지난해 8월 1만 2,000톤 이상이었으나 올해 1월 7,000톤대까지 급락했다.

재고량은 당분간 낮은 수준 보합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냉동 보관 업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4월 12일자

日 2월 냉동 눈다랑어 kg당 960 엔

수입량 회복했으나 고가 유지

일본 재무성 통계발표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2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수입량 335톤(지난해 동월 대비 31% 감소), 수입액 4억 4,500만 엔(39% 감소), 냉동 수입량 1만 1,208톤(10% 감소), 수입액 148억 3,300만 엔(41% 증가), 가공품 2,876톤(12% 감소), 17억 8,300만 엔(동 수준)을 기록했다.

2월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3,880톤(8% 감소)으로, 2,000톤 미만을 기록했던 1월 대비 대폭 증가했다. 주력인 대만산 수입량은 2,158톤(11% 감소)이며, CIF 단가는 kg당 960 엔(53% 상승)으로, 900 엔 후반대의 고가 행진이 계속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선단의 눈다랑어 입하가 4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2월의 수입량 증가는 양륙 시기와 운반선이 들어오는 시기가 겹친 일시적인 증가로 관측된다. 오히려 유가 상승 및 엔저가 겹쳐 출어 척수가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이 이상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4월 6일자

日, 2022년 2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2월 냉동참치 총 1만 1,208톤 수입

2022년 2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2월	누계
날개다랑어	한국	113	6	119
	대만	625	298	923
	바누아투	-	1	1
	기타	15	15	30
	소계	754	321	1,074
황다랑어	한국	221	210	431
	중국	47	284	331
	대만	603	1,031	1,634
	필리핀	123	-	123
	인도네시아	-	-	0
	미국	-	-	0
	바누아투	148	24	172
	피지	23	50	73
	키리바시	29	-	29
	마셜제도	551	-	551
	기타	564	587	1,151
	소계	2,309	2,187	4,496
눈다랑어	한국	11	30	41
	중국	177	467	644
	대만	1,372	2,158	3,530
	세이셸	103	874	977
	바누아투	138	318	456
	기타	135	32	167
	소계	1,936	3,880	5,817
남방참다랑어	한국	449	-	449
	대만	95	5	100
	호주	-	-	-
	소계	544	5	549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4월 6일자

日 참치협회, 친환경 원양참치 냉매 도입 추진

온난화 계수 낮은 신형 냉매 연구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이하 닛카츠)가 대표기관 역할을 맡은 환경규제 적응형 냉동기술개발 실증사업(일본 수산청 보조)의 제3회 검토회가 지난 3월 24일 개최되었다. 닛카츠는 원양 참치 연승선의 초저온 냉동기에 공기 냉매와 온난화계수(GWP)가 매우 낮은 신형 냉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아직 과제가 남아 있으나, 냉매 프레온 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완료되어도 원양 참치 연승어업이 존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났다.

해당 사업에서는 신조 어선을 대상으로 오존파괴지수(ODP)와 GWP가 제로(0)이고, 독성이 없는 공기를 냉매로 한 -60℃의 초저온 냉동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닛카츠는 일본 해양수산시스템협회(이하 시스템협회) 및 초저온 공기냉동시스템 '파스칼에어'를 개발한 (주)마에카와제작소(前川製作所)와 함께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원양 참치어선의 도입을 목표로 협력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검토 초기 톤수를 늘려야 할 정도로 과도한 설비가 필요했으나, 시스템 구성을 변경해 설계의 자유도를 높였다. 또한 냉매 압축기를 4대에서 3대로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 창고 용적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복원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499톤형 선박에 배치시키는 시험 설계가 완성되었다.

오존층 파괴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르면, 일본 등 선진국은 GWP가 높은 대체 프레온의 배출량을 2036년까지 2011~13년 대비 85%(이산화탄소 환산) 삭감하는 것을 공약하고 있다. 업무용 냉동 공조기기에는 GWP 450 이하의 냉매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주류인 R404A는 R22 냉매보다 ODP가 낮으나 GWP가 3,920으로 높다. 따라서 기존의 선박도 새 기준을 충족시키는 냉매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닛카츠는 시스템협회, (주)닛신흥업과 협력해 기존 냉매와 설계압력이 비슷해 현행선의 개조가 적고, GWP가 450 이하이며, 일본 내에서 입수가 용이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냉매 추출을 개시했다. 그 결과, R404A와 R22의 대체로 R454A, R454C가 발견되었다.

육상 시험을 통해, 3가지 냉매 모두 초저온을 유지할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 3종 모두 미연성(未然性)으로 분류된 해당 냉매들은 현재 사용 승인 대기 중이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 암모니아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닛카츠는 검토회에서 "모두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존냉매인 R22의 사용은 2020년 실질적으로 전면 폐지되었고, GWP가 높은 R404A도 규제대상이 되면서, 원양 참치선의 냉매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신형 냉매가 승인되면 배관 등의 개조는 필요하지만, 기존 선박과 신냉매 사용을 전제한 신규 선박에 모두 도입할 수 있어 현행 선박의 사양을 유지할 수 있다.

신규 냉매 규제책 검토가 시작된 현 상황 하에서, GWP 제로의 공기 냉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은 산업 유지에 큰 의의가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3월 31일자

견고한 글로벌 수요로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상승

인도양 가다랑어 타 지역으로 운송 증가

최근 세이셸에서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이 톤당 1,425 유로(1,564 달러)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16% 상승했다. 어획량은 평균 수준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이셸에 있는 가공공장 IOT(타이유니온 소유)는 양철 공급 부족으로 인해 100% 가동되지 않고 있다. Princes Tuna Mauritius 공장은 영향이 적으며 평상시와 같이 가동되고 있다.

현재 가다랑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높은 가격에 쉽게 판매할 수 있다. 인도양에서 어획된 가다랑어는 방콕, 만타, 가나로도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타이유니온 그룹은 최근 인도양에서 어획한 참치를 가나 가공공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가나와 세이셸은 세이셸이 가나에 수입세 없이 참치를 수출할 수 있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EU가 양국 간 무역협정을 인정하고 있어 가나에서 세이셸 국적 선망선이 어획한 참치를 가공하더라도 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과거 인도양에서는 참치캔 가공공장의 수요와 선망선사의 공급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며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가격 수준이 유지되었다. 소식통은 이제 원어가 다른 가공 지역으로 이동하며 균형이 무너지고 가격이 상승해 인도양 지역의 참치캔 가공공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황다랑어 가격은 지난 보고 가격보다 8% 상승한 2,400 유로(2,631 달러)이다. 어획량은 평균 수준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5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빠르게 증가

어획량 감소, 수요 증가 영향

동부태평양 주요 가공 거점인 만타의 가다랑어 가격은 약 7% 상승한 톤당 1,850~1,950 달러를 기록했다. 만타 가격 또한 2013년 이후 4월 가격 최고가이다.

소식통은 현재 동부태평양에서 참치 조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며 선망선의 하역량도 적다고 말했다. 한편, 참치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치캔 가공업자들은 최대한 많은 참치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선단이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려고 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콰도르도 선박용 경유(MGO)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조업 여건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4일자, Atuna, 2022년 3월 16일자

글로벌 경유난, 참치 공급망 충격

조업, 트럭 운송 등에 영향

전세계 시장이 경유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세계 3대 석유 중개업체들이 일제히 경고했다. 특히 유럽이 '체계적인' 부족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면서 연료 배급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월 21일 캐나다 선박유 가격 정보업체 Ship & Bunker에 따르면 세계 평균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1,165 달러이며 싱가포르 MGO 가격은 1,089 달러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MGO를 기준으로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선주는 하루 평균 30톤을 어획하기 위해 연료비로 2만 1,24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톤당으로 계산하면 700달러 이상이다. 연료비가 운영경비의 최대 60%까지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연료비 압력으로 보다 높은 가다랑어 가격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

연료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이미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젤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트럭 운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스페인은 높은 연료 가격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분노한 트럭 운전사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스페인 Calvo 그룹은 파업으로 인한 원재료 공급 감소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업이 중단되더라도 스페인 업체에서 생산해 국경을 넘어 이탈리아, 프랑스, 네델란드의 소매업체 창고로 운송되는 참치캔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선주들이 너무 높은 MGO 가격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참치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22일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3월 23일자

OPAGAC, 중서부태평양 MSC 인증 취득

CTTF, 반대 의사 철회

3월 16일 스페인 대형참치냉동선생산자연합(OPAGAC)의 중서부태평양 어업에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이 부여됐다.

인증에는 FAD를 활용한 선망선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업이 포함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수역, 키리바시·쿡제도·투발루·토켈라우 EEZ를 포함한다.

OPAGAC의 MSC 인증은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OPAGAC의 해당 인증은 영국에 기반을 둔 '투명한 참치어업을 위한 연합(CTTF)'의 반대에 부딪치며 최종 평가 결과가 발표된 2021년 11월 이후 인증이 연기되었다. 이번 주 CTTF는 마지막 절차인 공개인증보고서(PCR) 발표를 앞두고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CTTF는 현재 PNA의 중서부태평양 인증과 OPAGAC의 인도양 인증에 반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17일자

ISSF "전 세계 상업용 참치 80.5% '건강"

2021년 9월 87.7%에서 하락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의 최신 자원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어획된 상업용 참치의 약 80.5%가 '건강한(healthy)'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SSF는 보도 자료에서 전체 참치 어획물의 9.2%가 '남획(overfished)'되고 있는 자원에서 어획되었으며, 10.3%는 중간 수준의 풍부함(intermediate level of abundance)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된 2021년 9월 보고서에서 '건강한' 자원에서 어획된 비율은 87.7%였다.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6%를 차지하는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의 자원 등급이 '녹색(지속가능성 우려가 없음)'에서 '노란색(우려 요소가 있으나 RFMO의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등급으로 내려간 것이 감소의 주 원인이다.

이전 ISSF 보고서 이후 참치 자원 상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대서양 눈다랑어 산란 생물량(biomass): 주황색(남획되고 있거나, 혼획 비율이 개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혼획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가 불충분)→노란색
- 대서양 눈다랑어 어업 사망률: 주황색→녹색
- 지중해 날개다랑어 산란 생물량: 황색→주황색
- 지중해 날개다랑어 어업 사망률: 녹색→주황색

그 외 공개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세계 23개 자원 중 61%가 '건강', 26%가 '중간', 13% '남획' 상태
- 23개 자원 중 69.6%의 어업 사망률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21.7%가 남획 상태
- 2020년 주요 상업용 참치 어획량은 490만톤으로 2019년 대비 10% 감소. 이 중 가다랑어 57%, 황다랑어 30%, 눈다랑어 8%, 날개다랑어 4%, 참다랑어 1% 순
- 가장 많이 어획되는 5개 자원은 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인도양 가다랑어, 인도양 황다랑어,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 어획 방식: 66% 선망, 연승 10%, 채낚기 7%, 자망 4%, 잡어구 13%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18일자

케냐 케이프타운협정 비준

현재 17개국 비준

케냐가 케이프타운협정(CTA)을 비준하며 현재 비준국은 17개국이 되었다.

케이프타운협정은 발효 요건(22개국 3,600척) 충족 후 12개월이 지나면 발효된다.

* 기사 출처: 2022년 3월 24일자

GTA, 5개년 참치 공약, 연례 검토 보고서 발간

전체적으로 핵심성과지표의 37% 달성

세계참치연맹(GTA)은 파트너들의 진전 상황을 분석한 5개년(2020~2025) 참치 공약의 첫 번째 연례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21 진행 보고서는 GTA가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결과가 익명으로 공개되었다. 평가 항목은 추적 가능성, 환경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핵심성과지표의 37%를 달성했다. 개별 진전은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0~78%로 다양했다.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부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전체 달성 수치가 40%로 나타났다. 95%가 참치 및 수산물 조달 약속을 공언했다.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은 30%로 가장 진전 수준이 낮았다. 설문에서 질문 사항 중 하나는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다이얼로그(GDST) 표준을 최소한의 업계 전반 가이드라인으로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응답자의 62%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30%만이 가치 기준 참치 제품의 최소 30%에 대해 이의제기 식별자(complaint identifiers)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질문에는 14%만이 선박 추적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선박에서 유래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대답했다.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은 파트너들이 개선에 대한 공약을 포함해 인권 관련 기업 정책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급망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GTA의 전무이사인 Tom Pickerell은 GTA가 선박 추적과 관련해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활동 감시 포털 Global Fishing Watch와 함께 툴킷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추후 이번과 비슷한 조사가 2022년, 2024년 말에 수행될 예정이며 2023년과 2025년에 제3자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1일자

스페인 2021년 참치캔 수출 10% 감소

평균 CFR 가격 톤당 5,115 유로

스페인의 2021년 참치캔 수출량은 10% 감소했으나 지난 5년간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수출량의 90%는 같은 EU 국가로 수출되었다. 2021년 EU 국가 참치캔 수출량은 2020년 대비 20피트 컨테이너 890대 분량만큼 감소했다.

이탈리아가 수입한 스페인산 참치캔의 양은 4만 5,038톤으로, 여전히 스페인 참치 제품의 주요 구매자로 남았다. 일부 스페인 참치캔 가공업체가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탈리아로 수출된 스페인산 참치캔의 평균 CFR 가격은 톤당 5,377톤으로, 스페인산 참치캔의 수출지역 중 두 번째로 가격이 높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18일자

NGO, 범블비 대상으로 강제노동 소송 제기

범블비 노동 관련 마케팅, 거짓·기만이라고 주장

미국에 소재한 NGO인 세계노동정의-국제노동권 포럼(Global Labor Justice-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이하 GLJ-ILRF)은 3월 24일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GO는 미국 3대 참치캔 회사인 범블비사(Bumble Bee)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근로자 안전 위반이 만연해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블비가 근로자 안전 및 노동 관행 측면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NGO는 소송에서 범블비와 범블비의 주요 공급업체이자 모회사인 대만 FCF사가 상업적 참치어업에서 불공정하고 위험한 노동 관행에 가담하거나 허용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상세히 열거했다.

GLJ-ILRF는 범블비의 어선원 안전 정책 및 절차가 업계 주도의 비독립적인 그룹인 Seafood Task Force와 함께 개발한 일련의 행동 수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 수칙은 업계 전반에 걸친 최소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대부분의 범블비 경쟁 업체들이 따르고 있어 '동종 최고'의 지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들은 이러한 지침이 어선원노동협약에서 설정한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30일자

유럽 참치 가공업체 해바라기유 위기

노 드레인 캔, 파우치 등 대체 방법 모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해바라기유의 80% 가량을 공급해왔으나, 현재 전쟁으로 인해 공급에 제동이 걸렸다.

업체 관계자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에서 유입되는 해바라기유도 있지만 이미 다 팔려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테르담 창고의 재고가 15~30일 이내에 소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한다. 그는 많은 고객들이 유전자 변형이 없는(non-GMO) 대두유, 유채씨유와 같은 다른 식용유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두유 가격은 불과 몇 주 전 톤당 1,450~1,500 유로였으나 현재 1,800 유로이다.

업계는 식용유가 적게 포함되는 노 드레인(No Drain) 공법을 적용한 캔이나 파우치와 같은 대체 가공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 필리핀 Philbest사와 PNG의 RD TUNA사 최고운영책임자(COO) Roland Joseph Salangsang은 "매우 높은 운임을 고려하면 노 드레인 캔이나 파우치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참치캔 가공회사는 비용을 통제하고 최종제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식용유에 물을 섞어 희석할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16일자

미국,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 추진

차기 WCPFC 회의부터 적용

미국 어업자문위원회(FIAC)는 3월 10일에 회의를 개최해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는 태평양에서의 미국 수산업 번영과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태평양 전략을 승인했다.

미국 서부태평양 지역 어업관리위원회(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 이하 WPRFMC)는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어업의 중요성과 미국 국익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가 이 지역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활동은 WPRFMC가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의 최근 회의를 미국 의제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다고 분류한 후 취해졌다.

미국령 사모아 선주인 Stuart Chikami는 "협상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과 소규모 도서국과의 관계가 강하지 않다"며 "WCPFC에서 준수와 관련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WCPFC는 의도한 목적보다 소수 회원의 경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FIAC는 WCPFC의 미국 고문들에게 차기 회의에서 승인한 전략을 다루고 연승 및 선망 어업계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 기사 출처: WPRFMC 홈페이지, 2022년 3월 10일자

미국 WPRFMC, 낚시바늘 제한조치 지원 않기로

4.5mm 초과 규제, 실효성 및 경제성 문제

미국 서부태평양 지역 어업관리위원회(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 이하 WPRFMC)는 3월 23일 호놀룰루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과 명확한 보존 이득 부족으로 인해 직경 4.5mm 이하의 낚시바늘 사용 채택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승선은 2013년부터 혼획된 흑범고래(범고래붙이)를 방류하기 위해 곧게 펴고 풀 수 있는 4.5mm 이하의 낚시바늘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한 낚시바늘 사용이 채택된 이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았다. 또한, 무게나 나가고 가치 있는 눈다랑어를 어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기사 출처: WPRFMC 홈페이지, 2022년 3월 23일자

EU 그린딜에 따른 참치 부문 영향

참치 캔·병·파우치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받아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그린딜(Green Deal) 패키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순환 제품이 EU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EU는 녹색 전환을 위해 순환 비즈니스 모델 도입 및 소비자 권한 부여를 촉진하고 있다. EU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이 전체 수명주기 동안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명주기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일상적인 사용, 용도 변경, 수명 종료까지를 의미한다.

참치 부문의 경우 이는 각 제품이 에코디자인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내 각 제품(캔, 병, 파우치)은 수명주기 환경영향의 80%를 다루는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가능한 경우 참치 소비재·공급망·전체 생산 공정이 보다 오래가고, 신뢰할 수 있고, 재사용 가능하고,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 규제 대상 제품에는 전자 여권(digital passport)이 부여된다. 전자 여권이 참치 제품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31일자

EU,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이민 문제 결부 검토

세네갈 일반특혜관세 철회 위험 높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를 다시 받아 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 특별무역관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EU는 개발도상국에 특혜 관세를 제공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실시하고 있다. GSP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기본 GSP는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 수입 관세를 최대 66% 경감해준다. GSP+는 취약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를 '0'으로 낮춰준다.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EBA는 최빈국에게 모든 제품에 대한 완전한 관세 및 쿼터의 면제를 제공한다.

EU는 지난해 9월 2024~2034년 동안의 새로운 GSP 계획에 대한 입법안을 채택했다. 이주 관리 협력을 강조하는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4월 25일에 있을 예정이다.

세네갈은 이민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무역 특혜(EBA)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기준 세네갈의 EU 수출액은 5억 5,000만 유로이며 이 중 특혜 관세 혜택은 2억 1,700만 유로에 달했다. 주요 수출품은 어류 및 기타 수산물이다. 2021년 기준으로 참치캔 2,272톤, 원어 8,000톤 이상을 수출했다.

올해 초 유럽의회는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EC에 관세 특혜 철회를 촉구했다. 이전에 EU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GSP에서 일부 캄보디아 수입품을 제외한바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7일자

유로-달러 환율, 세계 참치 무역에 큰 영향

달러화로 EU 수출하는 가공업자 경쟁력 하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지난해 1.22달러의 가치였던 유로화가 현재 1.10 달러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나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참치 무역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ABN Amro 은행의 수석 통화전략 담당자 Georgette Boele은 지난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유로 가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Boele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주요 상품의 공급 차질이 심해질 것이며 유로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 뉴스 매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이 오기 전에 유로 가치가 달러 수준으로 내려올 확률은 약 13%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스페인이나 아프리카에서 유로로 참치를 판매하는 가공업자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콰도르, 필리핀, PNG에서 달러로 참치를 구입해 왔던 EU 구매업자들은 유로나 현지 통화로 거래하는 참치캔 가공업체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 달러화로 참치캔을 판매하는 가공업자는 이미 환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큰 난관에 직면한 것은 에콰도르 가공업자들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에콰도르 가공업자들은 2년만에 EU 수출의 1/4를 잃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될수록 에콰도르 가공업이 손실을 복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Boele는 더욱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8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모리셔스,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등 유로로 판매하는 시장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시장이 쿼터 제한으로 인해 판매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중남미산 참치 제품의 EU 국가 소비자 가격이 급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3월 18일자

대만 FSF-환경 NGO 지속가능성 협력

참치 연승어업 FIP 추진…MSC 인증 목표

대만에 본사를 둔 참치 가공·수출회사 Fue Shin Fishing(FSF)과 환경보호단체 Ocean Outcomes(O2)는 지난주 지속가능 수산물 운동을 대만 참치 연승어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2개의 어업개선프로젝트(FIP)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등을 어획하는 연승선 30여 척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감시를 개선할 예정이며, 최종 목표는 해양관리위원회(MSC)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4일자

日 2021년 양식 참다랑어 출하량 2만 1,000톤

2020년 대비 18% 증가

일본의 2021년 양식 참다랑어 출하량은 2020년 대비 18% 증가한 2만 1,460톤으로, 수산청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천연 종묘 유래는 29% 증가한 1만 9,596톤, 인공 종묘 유래는 37% 감소한 1,864톤을 기록했다. 인공 종묘는 2020년 마릿수 기준으로 20% 이상 증가했으나 2021년에 급감 추세로 돌아섰다.

2021년 출하 마릿수는 6% 증가한 29만 5,000 마리이다. 이 중 천연 종묘는 26만 마리, 인공 종묘 3만 5,000 마리였다. 점유율로 환산하면 인공 종묘는 전체의 1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에 비해 11% 하락했다.

2021년 참다랑어 종묘는 7% 증가한 54만 1,000 마리였으며 이 중 천연 종묘는 4% 증가한 33만 9,000 마리, 인공 종묘는 12% 증가한 20만 2,000 마리였다.

2021년 12월 1일 시점 일본의 참다랑어 양식 경영업체 수는 88개로 2020년 대비 2개 감소했다. 양식장 수는 1개소 증가한 187개소, 수조 수는 1,379개이다. 187개 양식장 중 72개는 일본 농수대신 지시에 따라 인공 종묘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3월 31일자

초저온 참치 사슬에 대한 중국 투자 가속화

초저온 어선·운반선·냉동창고 확대

중국은 초저온 어선, 운반선, 냉동창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China Ocean Development Group은 지난 3월 31일 Din Tai Fung Holdings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참치 연승선을 운용할 예정이다.

계약에 따라 Din Tai Fung은 10척의 초저온 연승선을 등록해 원양어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국영 Shandong Shipping Corporation에 속해있는 Shandong Ocean Cold Chain Development(SDOCC)는 지난 1월에 중국 최초로 초저온 냉동 운반선 Ocean Star호를 신조해 인도 받았다. Ocean Star호는 대서양에서 중국 참치 연승선이 어획한 참치를 운반할 예정이다.

한편, Zhengfu 초저온 냉동 저장 프로젝트(1단계)가 1년 이상의 건설 작업 끝에 지난 1월 가동을 시작했다. 푸젠성의 성도인 Fuzhou에 위치한 이 창고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냉동창고이다. 전체 시설 면적은 5,000m2이고 35,000m3의 저장 능력을 가진 창고가 5개 구역에 나눠져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4월 5일자

페루 2022년 대왕오징어 쿼터 50만톤

쿼터 소진시 어업 종료, 미소진시 12월 31일까지

페루 생산부는 지난 4월 1일 아메리카대왕오징어의 2022년 어획 쿼터를 50만톤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쿼터는 페루의 국립해양연구소인 IMARPE의 보고서에 따라 자원 가용성, 환경적 요인 또는 보존 목적 등의 이유로 수정될 수 있다.

페루 생산부는 오징어 어업이 올해 정해진 쿼터에 도달하거나 근접하면 종료되며, 그 전까지 쿼터가 소진되지 않으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4일자

포클랜드, 7월부터 칠레 항공 노선 재개 검토

상파울루 노선 재개 11월 가능

포클랜드 정부는 필요한 모든 허가가 부여되고 본토 공항이 개방되는 경우 다가오는 7월 2일부터 칠레와의 항공 노선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포클랜드에서는 5월 4일부터 더 이상 검역이 필요하지 않으며 필수 방문자 정책(방문자 제한 정책)이 종료된다.

칠레 노선 재개 이후 11월에 상파울루 노선 재개도 시작될 수 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2년 4월 8일자

러시아, 베링해 명태 어획량 증대 위협

수산청장, 50% 증가 언급... 수산청은 당장의 의제 아니야

지난주 러시아 극동 지역 고위 정부 관리자 회의에서 Ilya Shestakov 수산청장은 베링해(명태 주어장)에서 러시아가 어획량 점유율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간의 연구 공유 지침(guidance of shared research) 하에 베링해 내 각자의 관할권에서 조업하고 있다. 관할권은 1990년 양국 책임자가 체결한 협정으로 정해져 오늘까지 이어져왔다. 현재 러시아는 베링해로 간주되는 수역 면적의 약 20%에 대한 조업 권리를, 미국은 80%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베링해와 축치해의 대륙붕에 위치한 서부베링해로 알려진 러시아 수역의 어획량은 약 40만톤이다. 반면, 미국의 동부베링해 어획량은 140만톤이다. 즉, Shestakov 수산청장의 제안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어획량을 두 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 수산청이 TAC 증가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현재 러시아 환경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수산청장의 의견과 달리 수산청은 현재 관리 시스템 폐지가 당분간은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러시아 수산업계의 경영진은 수산청장의 제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어선선주협회(FSA)의 Alexey Osintsev 회장은 두 나라 모두 어류 자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어획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어류 자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 상황에서 그러한 시나리오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Primorye수산기업협회의 Georgy Martynov 회장은 "어획량의 급격한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추가 할당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3월 31일자

러시아, NAFO 의장직 상실

NAFO 회원국 자격 유지

러시아연방의 Temur Tairov는 지난 9월부터 공해상의 어획량을 관리하고 쿼터를 정하는 지역 수산기구(RFMO)인 NAFO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최근 해당 직위에서 물러났다.

Tairov는 지난 3월 초 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건강상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일부 회원국이 현 상황에서 직무 수행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NAFO는 4월 말 예정되었던 새우 관리 관련 회의를 '현재 상황'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했다.

공석이 된 Tairov의 직위는 미국 국적의 Deirdre Warner-Kramer가 대행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5일자

러시아 2023년 조업구역별 명태 TAC 권고안 발표

오호츠크해 방면 6~11% 감소

러시아 과학연구기관이 2023년 명태 조업구역별 TAC안을 발표했다.

전 구역 TAC 합계는 이전에 발표된 대로 188만 9,400톤이다. 자원의 자연변동을 감안해, 전년도 대비 2% 삭감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4월 5일자

2023년 러시아 극동 명태 조업구역별 TAC

(단위: 톤)

조업구역		2023년 안	2022년	전년비
서베링		444,000	409,700	108%
동캄차카	카라긴스키	60,700	60,700	100%
	페트로파블롭스크	75,400	74,800	101%
북쿠릴		94,100	93,400	101%
남쿠릴		135,000	135,000	100%
오호츠크해	북오호츠크	322,900	344,200	94%
	서캄차카	322,900	344,200	94%
	캄차카·쿠릴	251,200	267,600	94%
	동사할린	109,600	122,700	89%
동해	연해지방	26,700	20,700	129%
	서사할린	9,000	11,800	76%
추코트카 자치구		6,000	5,000	120%
추코트카해		31,900	37,200	86%
합계		1,889,400	1,927,000	98%

ICES, 러시아 활동 자격 정지 선언

3월 30일부터 자격 정지 발효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가 러시아의 활동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자격 정지의 효력은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ICES는 어획 쿼터를 정할 때 어류 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국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ICES는 러시아에 바렌츠해와 발트해 어족 자원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주요 흰살생선 및 부어 자원 쿼터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3월 30일자

美 상원의원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실제 집행 난관"

SIMP 적용 문제로 실제 집행 어려워

미국 상원은 지난 4월 7일 미국 하원 해양생물자원 소위원회(U.S. House Natural Resources Subcommittee on Water, Oceans, and Wildlife)의 청문회에서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표결했다.

그러나 상원 표결 직후 소위원회 위원장인 Jared Huffman 의원은 해당 금지 조치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Huffman은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많은 종에 미국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IMP)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이 SIMP 적용 대상인 13종이 아니라면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는 추적할 수 없으며, 수입 금지도 강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Stimson Center의 선임연구원이자 환경안보프로그램 책임자인 Sally Yozell 또한 러시아 수산물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가공된 다음 "중국 제품"으로 미국에 반입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SIMP 확장이 수산물의 추적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러시아 선단이 타국 항구에 접근할 수 있고, 타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으며, 해상 전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환경 NGO인 Oceana 측은 금수 조치 실효성을 위해 전 수산물에 대해 완전한 추적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관세 브로커이자 포워딩 사업자를 대변하는 Michael Lahar는 이미 SIMP가 수입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SIMP를 완전히 이행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데이터 시스템이 크게 낙후되었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4월 7일자

美, 러시아산 수산물 금수 행정명령 유예

현지시각 6월 23일까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러시아산 수산물의 미국 항구 반입 가능 시한을 미 동부 시각 기준 2022년 6월 23일 오전 12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지난 3월 24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시한보다 3개월 연장된 것이다. 유예 기한은 3월 1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정된다.

3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 조치 명령을 발표한 바 있으며,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또한 이에 포함되었다.

금수 대상인 수산물 목록은 이전 발표와 마찬가지로 0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와 1603(육즙 및 어류 추출물/즙), 1604(어류가공품 및 어란류), 1605(조제, 보존 처리한 조개류/갑각류)류 등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24일자

알래스카 명태 가격 15년만의 최고가

PBO 톤당 4,500 달러…러시아 공급 경색 원인

한 알래스카 명태 어업회사 임원에 따르면, PBO 가격은 현재 톤당 4,500 달러를 선회하고 있으며, 톤당 5,000 달러를 넘어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해당 임원은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금수 조치가 더해져 알래스카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가공공장의 한 임원은 "미국 명태 생산업체들은 신규 수요 충족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우며",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올해 A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제품을 계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알래스카 베링해 명태 어획-가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명태 가격은 2008~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해당 관계자는 "러시아는 명태에 한해 알래스카보다 더 많은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은 명태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요 어획-가공업자들은 이미 A시즌 조업을 끝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더치 하버의 가공업체들의 어획물 처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공업체들은 H-2B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한 외국·내국인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들은 부가가치 제품 재고를 보충할 수 있었다. 3월 12일까지 딥스킨(껍질, 지방층 제거) 필렛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23%, PBO 필렛 생산량은 61% 가까이 증가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3월 25일자

RFC 오너 Gleb Frank, 美 제재 명단에 추가

제재 명단 발표 후 RFC 지분 매각

러시아 매체 Kommersant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흰살생선 생산업체 중 하나인 RFC와 러시아산 게 생산업체인 RCG의 주요 소유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Gleb Frank가 미국 정부의 최신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러시아 수산정보국장 Alexander Saveljev는 EU, 일본 구매업자들이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구매를 중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RFC가 EU 시장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판매한다는 기존 전략과 달리 중국 시장에 냉동 어류를 수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 Frank에 대한 제재는 선박장비 업체의 공급 거부로 RFC의 트롤선 신조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Frank는 제재 명단이 발표된 날, RFC와 RCG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지분은 Evgeny Orlov, Anton Chertkov 등 동 회사 경영진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3월 28일자
Intrafish, 2022년 3월 25일자

EU, 러시아 수입금지 품목에 흰살생선 미포함 확정

의료·식량·에너지·인도적 목적 등 필수품목 수입금지 예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근 공식화한 러시아 5차 제재에서, 흰살생선이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4월 8일 EU 의회에 의해 승인된 신규 제재에 포함된 수입 금지 수산물 품목은 캐비어, 캐비어 대체품, 다수 갑각류가 포함된 "고급 수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러시아 외의 대체 공급자 수가 극히 한정적인 대구, 해덕대구, 명태 3종의 수출이 이전처럼 계속됨을 의미한다.

최근의 제재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화물 운송 사업의 EU 운영 전면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 식품, 인도적 지원, 에너지 등 필수 품목"의 경우 면제된다. 러시아 국적선의 EU 입항 또한 금지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의료, 식량, 에너지, 인도적 목적의 품목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유럽 어류 가공업계와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기구인 AIPCE-CEP에 따르면 수입금지 조치에 제외된 수산물의 경우에도 러시아와의 교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AICE-CEP의 수산물 시장 분석가인 Mike Turenhout에 따르면 "실제로 러시아산 대구 수입에 불법 조업과 건강증명서 문제로 차질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러시아 당국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SWIFT 퇴출과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인한 대금 지불 문제도 있으며, 영국·유럽 등지의 소매업체 다수가 러시아 상품 불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Intrafish, 2022년 4월 8일자

英 러시아 흰살생선 35% 관세 도입 연기

추가 검토 후 도입 전망

영국은 3월 15일 대구, 해덕대구, 명태 등 흰살생선을 포함한 러시아산 제품 수입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 품목의 규모는 약 9억 파운드(약 11억 7,000만 달러)로, 통상 금액에 추가로 3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 영국 환경식량농촌부는 어류 수입 관세 도입을 일시 철회했다. 영국 정부 측은 여전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어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추가 검토를 우선적으로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어업단체 Seafish UK에 따르면 러시아산 어류에 대한 관세는 영국 어류 수입의 최대 30%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Intrafish, 2022년 4월 5일자

日 정부, 러시아 금수 검토…수산물 제외 예상

수산품목 관세율 상승…냉동 명태는 그대로

일본 정부는 대(對) 러시아 제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 일부 러시아 생산품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수 대상 품목에 대해, 일본 수산청의 한 중역은 "아직 수산물은 대상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한 다음 "수산물은 중국 등 제3국을 우회해 일본에 들어오는 일도 있어, 금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 개정의 내용은 관세잠정조치법을 개정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연어, 게 등에 대한 우대 관세율을 철회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외환법도 개정해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등의 자산이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두 개정안을 일본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관세잠정조치법이 개정될 경우 러시아산 수산물의 세율은 연어·송어가 3.5%에서 5%로, 게가 4%에서 6%로, 새우는 1%에서 4%로 상승한다. 한편, 관세 우대를 철회해도 생게 무관세, 냉동 명태 4.2%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자민당에 따르면, 당 재무금융부회는 지난 4월 1일 두 개의 법 개정안을 모두 승낙했고, 5일 오전 당의 심의회와 총무회에서 승인받아 최종 결정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 중 의결해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청은 관세 인상 실시 시기는 현 시점에서 밝힐 수 없으나 국회 통과 후 가급적 빨리 인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4월 6일자

日 2021년 명태 수출 1만 3,000톤

신선 명태 한국 수출 2% 감소

일본의 2021년 명태(신선·냉동) 수출은 주력인 중국용 냉동품 수출량이 증가해 2020년 대비 32% 증가한 1만 3,000톤을 기록했다. 일본 명태 수출이 1만톤대를 회복한 것은 2년만이다.

냉동 수출은 38% 증가한 1만 1,400톤이다. 3~8월 동안 월간 약 1,100~2,000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대폭 증가해 1만톤대를 회복했다.

신선 제품 수출량은 2% 감소한 1,600톤으로 모두 한국에 수출되었다. 수출 단가는 7% 상승한 391엔으로 최근 몇 년간 최고가였던 2020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현지 상사 소식통은 "홋카이도의 어획량은 증가했으나, 어육 원료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했고 어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행 수출이 부진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통은 "코로나로 인해 상업용 수요가 침체된 것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3월 30일자

Oceana, 어업 관련 이슈로 러시아 압박 요구

러시아 어업 대외의존도 및 높은 IUU 지수 지적

환경 NGO인 Oceana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를 위해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에 어업권을 파는 것을 거부하고 러시아 선단의 항구 접근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ceana는 러시아가 세계 4위 어업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르웨이, 한국, 일본 등 타국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Oceana는 AIS 데이터에 따르면 2019~2021년 러시아 선단이 노르웨이 EEZ에서 55만 시간, 일본 수역에서 28만 시간, 국제 해역에서 25만 시간 조업했고, 한국(2,000회)과 노르웨이(1,900회)를 포함해 세계 50개국의 항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Oceana는 또한 AIS 데이터를 통해 2019~2021년 냉동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이 한 항해 동안 러시아·비러시아 어선과 접촉한 158건의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접촉은 불법 전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수산·양식 컨설턴트 기업인 Poseidon과 스위스에 위치한 인권 NGO인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가 개발한 IUU 어업지수에서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152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Oceana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수산물 수입관리프로그램(SIMP) 확대 적용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러시아의 이러한 IUU 기록을 내세웠다. Oceana를 비롯한 SIMP 확대 적용 지지자들은 이것이 중국 등을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러시아산 수산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4월 11일자

러시아, 투자쿼터 어선 건조 이행 기간 연장 검토

어획량 쿼터 제공기간 연장도 검토

러시아 농업부는 대러 제재 도입과 관련해 투자쿼터 내에서 진행되는 어선 건조 사업의 이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대러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수산분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따른 것이다.

또한, 관련 법령 초안은 투자목적으로 이미 체결된 수산자원 어획량 쿼터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2년간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령 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기준 2,210억 루블 규모의 어선 건조를 위한 계약 65건이 체결되었으나, 건조 일정이 당초보다 훨씬 늦어져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선박은 불과 6척이며, 37척은 아직 건조 중으로, 나머지 계약 건들에 대해서는 선박 건조가 시작되지 않은 상이다.

더불어, 빅토리아 아브람첸코(Victoria Abramchenko) 부총리는 SNS를 통해 2년간 발생할 수 있는 수산분야 투자 사업 이행 실패에 대한 벌금 폐지 제안을 지지하겠다고 나섰다.

* 자료 출처: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2일자

러시아, 불법 조업 선박 항만 입항 금지 추진

항만국조치 반영한 법 개정 추진

빅토리아 아브람첸코(Victoria Abramchenko) 러시아 부총리는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러시아 항구 입항을 금지시키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알렸다. 러시아가 2020년 12월 'IUU 어업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에 관한 국제 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조업 선박으로 확인되는 선박의 경우 러시아 입항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법 조업 선박 내에 비상상황이 발생했거나, 안전 관련 정부기관의 검사 등 목적을 이유로 입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브람첸코 부총리는 불법 조업으로부터 러시아 국내 수산 및 어업 시장을 보호하고, 러시아 수산자원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적 조업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으로 조업된 수산물의 자국 수산시장 유입을 막고,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수산경제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자료 출처: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2

러시아, 농수산물 철도 운송 보조금 지원 예정

우대 요율 보조금 20억 루블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농수산물 철도 운송 우대 요율 관련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총리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추가 보조금 20억 루블이 할당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운송료 지원을 통해, 농산품 수송비용 절감과 러시아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공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농민들은 국가 지원금을 통해 비료뿐만 아니라 곡물, 기름 생산 작물, 농산 및 수산물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총 100만 톤의 화물 수송량 증가가 예상된다.

농산물 철도 운임에 대한 국가지원은 201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일반 철도 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 등 모든 종류의 화물 운송이 포함되며, 우대 운임 제공으로 인한 철도운송사의 이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운송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슈스틴 총리는 3월 24일 개최된 러시아 정부 회의 참석하여, 현재의 새로운 국면에서는 이 같은 농산물 철도 운임 보조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자료 출처: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2

EJF, 중국 정부에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 요청

EJF, 중국 원양어업 남획·학대 주장

환경정의재단(EJF)은 '더 넓어지는 그물(The Ever-Widening Net)' 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와 관련 영상을 발표했다.

EJF의 Steve Trent 대표는 중국 정부가 원양 어선단에 대한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윤리적인 어업 행위를 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규모 원양어선단은 어선원의 인권 침해와 불법 조업이 만연해 있으며 특히, 전 세계 해양의 멸종 위기 보호 종으로 지정된 해양 생물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규모 원양어선단은 막대한 금액의 국가 보조금 덕분에 먼 거리를 항해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역에서 파괴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해당 지역의 어촌 공동체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환경정의재단은 중국 원양어선에 승선했던 선원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고 중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와 어선 범죄 기록의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상호 분석했다.

· (중국 원양어선단의 만연한 불법조업) 88 척의 선박에 탑승한 100 명 이상의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95%가 다양한 형태의 불법 조업을 목격함
· (상어불법포획) 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선원들이 선박에서 지느러미가 제거된 상어의 몸통이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기되는 것을 목격했고, 바다에 던져진 상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음
·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어선원의 58%는 신체적 폭력을 목격했거나 경험했으며 85%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조업 및 생활을 한 것으로 보고됨. 인터뷰에 응한 어선원의 97%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의 형태의 채무를 경험했거나 여권과 같은 문서를 압수당함. 또한 인터뷰 대상자 99%는 급여가 공제되거나 보류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함.

아울러, EJF는 중국 원양어업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크게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EJF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54건의 IUU 어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트롤 31%, 연승선 28%, 오징어 채낚기 20%였다.

또한, EJF는 원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허가에 있어 IMO 번호를 의무화하는 등 원양어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선박 척수로 설정되어 있는 상한선을 특정 어구 유형에 대한 총 엔진 출력 및 총톤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해양연구소(China Ocean Institute)와 비영리 해양 보존·복원 단체 Oceana가 최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어업 어획량은 중국 전체 어획량의 22%를 차지한다. 하지만 유해 생산능력 강화 보조금의 49%가 원양어업에 투입되고 있다. 2019년에는 보조금이 118억 위안(18억 달러)에 달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4월 5일자
Atuna, 2022년 4월 8일자

WTO 6월 13일 수산보조금 규제 재논의 예정

제12차 각료회의 주요 의제

WTO는 제12차 각료회의 개최 일자를 2022년 6월 13일로 재조정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규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 최대 국영 참치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린 것과 그린피스가 원양선단 증가로 인해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참치어업이 주력인 중국 수산기업 Kaichuang은 3월 중순 중국 정부로부터 해외 사업 확장 지원 목적으로 2,500만 위안(약 400만 달러)의 신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참치어업 회사인 CNFC는 IUU 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억 9,000만 위안(약 2,98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3월 24일자

노르웨이 1분기 수산물 수출, 신기록 달성

수산물 가격 급등 원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코로나19 폐쇄로 인한 물류 대란 등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수산업계는 수산물 수출액 340억 크로네(약 34억 달러)를 달성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은 2021년 1분기 대비 22% 증가한 62억 크로네(약 7억 1,340만 달러)이며,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노르웨이의 대(對) 미국 수출은 총 26억 크로네(약 2억 9,910만 달러)로, 약 7억 8,500만 크로네 증가했다. 이어서 프랑스 수출액이 7억 3,000만 크로네, 중국 6억 6,800만 크로네를 기록했다.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1분기 양식 대서양연어를 28만 3,200톤, 액수로 232억 크로네(27억 달러) 수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5%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33% 증가했다.

노르웨이 흰살생선 부문의 경우, 1분기 대구 수출량은 총 2만 6,100톤이며, 수출액은 1분기 사상 최대치인 13억 크로네(1억 4,9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10%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19% 증가했다. 최대 수출 시장은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이다.

1분기 신선 대구 평균 수출 단가는 kg당 46 크로네(5.29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분기 대비 35% 높은 수치이다.

1분기 냉동 대구 수출량은 2만 9,600톤, 수출액 13억 크로네(1,496만 달러)로 기록을 세웠다.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 영국, 미국이다.

고등어 수출량은 6만 1,500톤(31% 감소), 수출액 12억 크로네(15% 감소)를 기록했다. 최대 고등어 수출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이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4월 7일자

NPFC 연례회의 연기

국제 정세 원인…신규 일정 미정

꽁치 자원 및 선박 간 어획물 전재 관련 관리방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 연례회의의 일정이 연기되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회의는 28~30일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가 국제 정세를 이유로 연기할 것을 호소하여 결국 연기되었다. 신규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각국 모두 완전 중지가 아니라 일정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PFC에는 꽁치 주요 어획국인 대만, 일본, 중국 외에 러시아, 미국 등이 참가했다. 이번 연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의에서 2021~22년 꽁치 TAC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회의가 연기되어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측은 자국 EEZ 내유 꽁치 자원이 급감했기 때문에, 조속한 어획 규제 실현과 자원 회복을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또한 IUU 어업 어획물의 판매 경로를 끊기 위해, 어선에서 어획물을 전재하는 운반선에 옵서버를 동승시키는 제도를 NPFC가 강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가 재개되길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지난해 공해 TAC의 대폭 감축 및 TAC의 국가별 배분을 원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공해를 주 어장으로 삼는 대만, 중국 등이 공해 TAC 삭감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 특히 중국 측은 과거 어획 실적이 적어 차후 국가별 분배 시 많은 쿼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을 쌓기 위해 어획 규제를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등을 협상 테이블로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NPFC 회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3월 26일자

EU, NPFC 가입

트롤 조업 계획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에 가입했다. EU는 참고등어 등 부어류 트롤 어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NPFC에서 규제하는 주요 어종은 꽁치, 고등어, 은어, 밴댕이, 빨강오징어, 살오징어, 그 외 심해어 등이 있다.

EU는 "NPFC에 적극 참여해 자원 보전, 지속가능성 관리, 취약 해양생태계 보호를 촉진하며, 법적 틀 강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4월 8일자, EU 공식 웹사이트, 2022년 3월 30일자자

EU 집행위,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 초안 공개

2024년 시행 목표이나 역내 협상 도출 난항 전망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영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전 공급망에 연결된 납품·협력기업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침해 여부를 조사 후 문제 발견 시 시정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속가능한 기업 실사 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① 대기업 및 ②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인 약 1만 3,000개사가 해당되며,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000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외 대기업은 EU 내 연간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초과 기업이고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은 EU 내 연간 순매출 4000만(초과)~1억5000만 유로이며,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고위험 산업군은 섬유, 광물 농업·임업·수산업이다.

실사대상 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또는 완화·제거 조치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및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EU의 기업 실사는 ① 실사를 기업정책 전반에 내재화(integrate)하고, ② 인권 및 환경 관련 기업의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식별(identify)한 후, ③ 이를 예방·완화·제거·최소화(prevent, mitigate, end, minimize)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④고충처리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establish, maintain)하는 한편, ⑤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을 시행하며 ⑥ 실사 내용을 공개(publicly communicate)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근로자·자회사의 행동강령·실사 접근방식·이행 프로세스 등 실사 내용을 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또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 최소화 또는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집행위는 기업이 협력사와의 실사준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사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계약종료 등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집행위는 추후 표준계약조항(model contract clauses)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업은 제3자 검증 또는 산업 이니셔티브 등을 적용해 협력사의 실사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3자 검증 통한 비용 발생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개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의 식별, 예방, 최소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최소 연단위의 모니터링 시행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실사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동의 후 2024년부 법안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나 역내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2021년 3월 실사 결의안을 발표했을 당시 중소기업도 실사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인권, 환경 외에 기후변화도 실사항목에 포함하는 등 집행위 초안 대비 강화된 내용의 실사를 요구한 바 있어, 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 기사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년 3월 28일자

EU 집행위, EU 어업자 연료비 지원

英 어업 단체, 정부에 연료비 위기 경고

EU 집행위원회는(EC) 3월 2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양식업·가공 부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C는 언론 성명에서 "현재 EU 선단의 일부가 투입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했다"라고 말했다. EC는 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상당한 비용 증가 및 무역 차질로 인한 시장 교란이 있다고 판단해 유럽의 위기 매커니즘인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AF)을 활성화시켰다.

EMFAF의 2021~2017년 예산은 23억 1,000만 유로(58억 3,000만 달러)이다.

EC는 2022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EC는 보상 계산 방안을 마련해 회원국에게 기술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어업자 단체에서 연료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어업연맹(NFFO)은 Victoria Prentis 영국 수산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계속되는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출항하면 손실만 보게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일부 어선은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NFFO은 현재 어업·수산 계획에 따라 배정된 자금의 용도를 어업자 지원 목적으로 변경해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28일자
Atuna, 2022년 3월 26일자

베이징, 4월부터 수입 콜드체인 식품 검역 강화

베이징시로 진입하는 콜드체인 수입 식품 대상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신문망 보도를 인용해 "베이징 시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297회 뉴스 브리핑에서 '베이징시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방역체계'를 발표해 베이징시로 진입하는 콜드체인 수입 식품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이 베이징시 진입 시 반드시 '베이징시 콜드체인 시스템'에 사전 예약 등록 △베이징시가 지정한 26개 동물방역 검문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 운반차량을 동물방역 검사소로 안내 △농업부 해당 관계자는 방역 전문 검문소에서 수입 콜드체인 식품의 핵산 검사 증명서를 확인 △현장점검 요원 체크 후 베이징 콜드체인 시스템을 거쳐 통과 △증명서류가 부족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통행금지 조치를 하며 운송인과 수화인도 신용평가 등급을 관리 등의 내용이다.

* 기사 출처: 한국무역신문, 2022년 3일 31일자

계속되는 폐쇄조치로 中 수산가공업계 위기

주요 가공공장 여전히 재가동 승인 대기 중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무관용 조치로 인해 지난 11월부터 폐쇄된 중국 다롄의 좡허시 주요 수산물 가공지구에서 다시 가동이 재개된 공장은 단 3개에 불과하다.

중국 가공공장은 춘절 연휴가 끝나고 공장 노동자들이 복귀하는 2월 중순 혹은 3월 초에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해당 지구에 위치한 200개가 넘는 공장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다. 해당 공장들은 지방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을 재개할 수 없다.

한 소식통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4월 중순이 되어야 재개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 가공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다롄의 봉쇄는 지난주 시작되었고 현재 연장되어, 중국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상하이항은 노동자들의 현장 이탈이 금지된 상황에서 24시간 내내 개방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성의 운전자들은 검역에 걸릴 것을 우려해 진입을 꺼리고 있다고 South China Morning Post가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항뿐만이 아니라, 세계 3위 규모의 항구인 닝보항에서도 선박이나 컨테이너 공간이 부족해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4월 6일자

中 칭다오, 수산물 수입 프로토콜 강화

오미크론 확산 원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을 겪고 있는 중국 칭다오시가 냉동 수산물 수입 관리 프로토콜 강화에 나섰다.

산둥성 정부는 모든 냉동수산물 사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완전무결" 방침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수입 식품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판매 시 코드로 추적 가능해야 하며, 3가지 특정 인증(검사 및 검역 증명서, 제품 목록, 냉장 유통식품 소독 기록 증명서)이 있어야 한다.

지역 간행물에 따르면 수산 매장 4개를 비롯, 규정을 위반한 산둥성 식품 업자 20인 이상이 처벌을 받았다.

칭다오 항만을 통제하는 Shandong Port Group은 칭다오항이 "견고한 장벽을 구축하여 항만 운영의 전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또 다른 수산물 가공 허브인 다롄 또한 코로나19 프로토콜을 개정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2년 3월 16일자

美 3월 신선 수산물 매출 10% 감소

냉동 매출 1.1% 증가

미국 3월 신선 수산물 매출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으나 냉동 및 상온보관 제품 매출은 증가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는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리서치 업체 IRI와 210 Analytic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신선 수산물 평균 가격은 개당 8.51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1% 증가했다. 2월과 비교하면 10.9% 상승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3월 신선 수산물 매출은 10.4% 감소한 5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신선 조개류 판매가 27.8% 감소했으며, 그 외에 게, 랍스터, 틸라피아, 메기가 각각 34%, 27%, 21.6%, 16.4% 감소했다.

210 Analytics 대표 Anne-Marie Roerink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게, 대구, 알래스카 명태 등의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냉동 수산물 매출은 6억 500만 달러로 1.1% 증가했다.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 또한 9.2% 증가한 2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Roerink는 냉동·상온 보관 제품 매출이 신선 제품과는 달리 증가한 이유로 장기간 보관 가능하다는 점, 냉동 제품이 신선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믿는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제시했다.

IRI가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2%가 식품 가격이 작년보다 다소 또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며 이 중 95%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중 49%가 식품 가격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라고 답한 반면, 코로나19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라고 답한 소비자는 27%에 그쳤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4월 11일자

美 2021년 식물 기반 수산물 매출 1,390만 달러

2020년 대비 약 14% 성장

미국 대체식품 홍보 비영리단체 GFI와 식물성식품협회(PBFA)가 지난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식물성 수산물의 2021년 매출액은 1,39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14%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4%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 기반 대체 수산물은 전체 식물성 수산물·육류 부문 매출의 1%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 수산물은 일반 육류·수산물 매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식물 기반 대체 수산물의 점유율이 20%까지 성장한다면 식물 기반 대체 수산물의 소매 매출은 약 2억 2,0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3월 25일자

바닷가에서

오 세 영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지는 일몰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 있는 섬을 보아라
홀로 견디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부산시, 수산분야 시정현안 설명회 개최

협회장, 부산시와 협회 간의 정책개발, 공동사업 발굴 요청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릴레이, 그 일곱 번째 순서로 부산시 수산업 단체를 만났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4시, 자갈치 부산시 수협위판장 회의실(3층)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수산분야 시정현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를 일상회복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각계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시정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그간 6회에 걸쳐 릴레이 설명회를 이어왔다. 이날 설명회는 릴레이 설명회의 마지막 차례로, 각종 대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단체 대표 10여 명이 참석해 수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이어가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먼저, 회의를 직접 주재한 박형준 시장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부산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준 어업인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수산업계가 위기감을 느끼는 대내외적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오늘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서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부산시가 수산단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비롯해 ▲수산자원, 수산유통, 수산기업, 어촌어항 등 4개 분야의 2022년 수산분야 업무계획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현황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수산단체 대표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은 부산시와 협회 간의 정책개발과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를 요청했다.

박극제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전갑출 서남구수협장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지원율 확대를 요청했다.

또, 천금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문용환 기장수협,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조합장들은 코로나 19와 유가상승,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어업보조금 확대를 건의하는 등 수산단체의 현안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 마련

수산계고 활성화·비수산계 해기사 양성 등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업과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 추세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어선원 수(20t 이상 근해, 원양) : ('10)17,831명 → ('15) 16,820명→ ('20) 14,975명

** 60세 이상 어선 해기사 비중 : ('10) 11.7% → ('15) 30.1% → ('20) 50.7%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매년 청년 어선해기사 150명 확충을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을 수립하였다. '청년어선원 육성방안'은 수산계 고교 활성화, 선원전문교육기관의 수산계고교지원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0년 기준 연평균 약 100명 정도의 신규 어선 해기사 배출 중

우선,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 수산업계, 선원노조가 힘을 모아 장학사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승선체험 등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업경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습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연계프로그램과 취업준비금, 장기승선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 후의 진로까지 보장한다.

선원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산계 고교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2026년까지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승선실습을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해 최신장비를 갖춘 실습선에서 전공강의를 듣고, 선배 어선원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승선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 개설되던 어선해기사 5급 과정을 매년 개설하는 한편, 어선해기사 6급 과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산계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마이스터고를 확충하고, 수산계 고교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찾아가는 어선원 모집활동, 어선임대사업, 청년 어선원 숙소 지원 등 젊은 어선원 모집 및 취업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식시간보장,

어선현대화와 스마트 장비 도입 등을 통한 노동강도 저감 등 어선원의근로여건까지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선원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청년어선원 육성 방안'은 어선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한 청년들이 어선어업분야에 유입되고, 어선어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회 장	**윤 명 길**	**589-1600**	
상 무	신 현 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 사	이 형 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 서(주임)	조 한 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공길웅 과장 조성환 과장	589-1604 589-1605 589-1606	총 괄 총무, 자금 서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김영수 과장 김민재 사원	589-1607 589-1608 589-1609	총괄(겸직) 기획, 홍보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김효상 과장 최동환 주임	589-1610 589-1611 589-1619	총 괄 무역제도, 수출통계 노사, 선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최봉준 과장 백상진 주임 김태호 사원	589-1612 589-1613 589-1614 589-1615	총괄(겸직) 국제 협력 참치선망 참치연승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조성주 과장 최상진 사원	589-1616 589-1617 589-1618	총 괄 북양, 꽁치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	이성재 이사 김현애 과장	(051) 253-3388	총 괄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 계량소	이동주 팀 장 최광준 팀 장	051) 253-3391	차량계량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 장 정수진 행정관	044-868-7834 044-868-7837	행정총괄,명예수산관 OFIS,해외수산투자,행정
	국제협상 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 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044-868-7831 044-868-7363 044-868-7833	일반/지역수산기구 일반/지역수산기구 對 일본 업무
해외진출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6 044-868-7838	ODA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관 연락처

담당지역	성 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 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3호

발 행 : 2022년 4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 명 길
편집인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듬뿍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꽁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여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나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나다.

KOFA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 www.kosfa.org |